

리아흐나



**조셉 필딩 스미스:
신앙의 수호자, 32쪽**

멕시코 교회의 다채로운
역사와 아름다운 미래, 24쪽

2014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50, 52, 53쪽

색칠하기 활동과
구약전서 독서표, 74, 76쪽



“여러분 중 몇몇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시련이 너무
힘에 겨우며,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염된 연못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 기억하십시오,
연꽃의 줄기가 역경
속에서 자라 연꽃을
받쳐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받쳐
주고 들어 올려 줄
것입니다.”

메리 앤 쿡,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간증의 닻”,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22쪽.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모범

특집 기사

- 18 신앙과 소망으로 미래를 맞이하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우리는 신앙으로 견고, 확신을 갖고
일하며, 구주의 대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헌납해야 합니다.
- 24 모든 나라의 개척자들:
멕시코 탐방-고난에서 강인함으로
샬리 존슨 오드커크
멕시코의 후기 성도들은 조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 32 참되고 충실함: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나오는 감동
호이트 더블유 브루스터 2세
강타자인 야구 선수이자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현대의 선지자를 만나
보십시오.

교회 본부 기사


- 8 2013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익명
- 12 구약의 선지자들: 아담
- 14 복음 고전: 거룩한 신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17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가르치기:
안식일 준수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수 있나요?
테레사 스타

표지
앞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33세에 사도로
성임된 직후인 1910년 4월 26일에 찍은 사진.
표지 안쪽: 사진, 라린 포터 건트



42

42 잘 견디십시오
크리스토퍼 제이 랜싱 장로
우리의 희망과 꿈이 산산히 부서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경전을 찾아보세요!

46



- 46** 미래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미래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 50** 2014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라.
- 52**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모로나이서 10:32
올해 상호 향상회 주제는 온전함으로 향하는 길에 대해 가르칩니다.
- 53** 포스터: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 54** 신화를 알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신화에 관한 다음의 다섯 가지 원리는 크고 작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로리 풀러
- 5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나는 항상 그분을 기억합니다
래리 엠 김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약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결의를 보여 줍니다.
- 58** 성공으로 나아감
다니엘 카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실력 위기 사이에 놓인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
- 59** 해답을 찾아서
- 60** 양쪽 모두 축복을 받도록
브리트니 비티
우리는 가족의 이름을 조사하여 성전에 제출할 때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4** 우리들 공간



72

- 66** 전 세계 친구들:
멕시코의 마흔리와 힐라맨
- 68** 특별한 증인: 기독교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69** 전 세계 친구들: 여권
- 71** 우리들 이야기
- 72** 마치 경전처럼!
르네 웨이트 맥클리
경전은 정말로 내 삶과 같을 수 있다!
- 74** 구약전서 읽기 목표
- 77** 승리의 터널
로즈메리 엠 워슨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누가 보여 줄 수 있을까요?
- 78**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
- 81** 선지자 초상화: 해롤드 비 리

2014년 1월호 제51권, 제1호
리아호나 1098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입니다.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레슬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얼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린 비 아놀드, 세인 엠 바운, 스텐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호세 엘 알론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넷,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콜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프, 제니퍼 그레이스 존스,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스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페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뮐렌버그, 머리사 왓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노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류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처칠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루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데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뱅크스, 코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가일 타데 라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우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통권: 제566호, 제51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장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잡지 구독 신청서”는 www.lids.or.kr “교회와 연락하기” 배부 센터)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불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anuary 2014 Vol. 38 No. 1.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521-479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사진 출처: iSTOCKPHOTO/THINKSTOCK, 쉐든 시먼디슨

“미래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46쪽: 아이어링 회장의 기사를 읽은 후 부모와 자녀들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재능 발표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모든 식구에게 발표할 기회를 준 후, 부모는 그들의 재능이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설명한다. 그런 후 자녀에게 자신의 재능이 어떻게 가족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의 미래 가족에게는 어떻게 축복이 될지 이야기하게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재능을 발전시킬 목표를 세우라고 권고할 수 있다.

“구약전서 읽기 목표”, 74쪽: 가족이 함께 구약전서 읽기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진도를 표시하려면 잡지에서 색깔 표를 떼어 내거나 liahona.lids.org에서 복사하면 된다. 가족이 함께 제안된 경전 부분을 읽고 토론하며 매주 할당된 분량을 올해에 완독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60, 64

가족, 46, 60, 64

간증, 64

개척자, 24

견담, 42, 72

검손, 10

교만, 10

구약전서, 12, 74

구원의 계획, 78

기도, 64

기독교인, 40, 68

멕시코, 24, 39, 66

모범, 7

목표, 4, 18, 46

몰몬경, 38

번역, 18

봉사, 40

상호 향상 모임 주제, 50, 52, 53

선교 사업, 38, 59

성신, 14, 40, 54, 64, 81

성약, 56, 58

성전, 24, 39, 60

소망, 18

속죄, 4, 10, 14, 54

시련, 42

신앙, 18

신화, 14, 54

아담의 타락, 12

안식일, 17, 56, 58

예수 그리스도, 7, 14, 50, 52, 54, 56, 68

완전함, 50, 52

유산, 24, 32

자녀, 41

재림, 18

조셉 필딩 스미스, 32

평화, 41

필멸, 12, 42, 78

하나님 아버지, 14, 54, 77, 78, 80

해롤드 비 리, 81

회개, 4, 10, 4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

고대 로마에서 야누스(Janus)는 시작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한쪽은 과거를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바라보는, 두 얼굴을 가진 신으로 종종 묘사되었습니다. 영어의 January처럼 일부 언어의 1월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새해 계획을 세우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이란 물론 세우기는 쉽지만,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새해 계획을 잔뜩 세운 어떤 남자는 자신이 한 일에 꽤 흡족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체중 조절도 잘 해 왔고, 화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았고,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도 불평한 적이 없지. 그런데 벌써 1월 2일이 되었네. 자명종이 울리는 걸 보니 일어나야 할 때구나. 새해 목표를 계속 추진하려면 기적이 필요할 거야.'

다시 시작함

새로운 시작에는 뭔가 놀라울 정도로 희망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쓴 적이 없는 하드 드라이브가 장착된 새 컴퓨터가 생기면 신이 납니다. 한동안 그 컴퓨터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할수록(일부러 설치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컴퓨터는 결국 멈추기도 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능하던 것들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전혀 작동되지 않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와 쓸데없는 기능으로 하드 드라이브에 과부하가 걸리면, 컴퓨터를 켜는 일조차 만만치 않은 일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컴퓨터를 새로 포맷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의심, 또 무거운 죄책감으로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일부러, 또는 무심결에) 잘못들은 응당 해야 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경우, 회개라고 부르는 놀라운 재포맷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안의 하드 드라이브에 축적되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을 깨끗이 없애 줍니다. 복음은 기적적이고 연민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의 얼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어린아이처럼 새롭고 순수하며, 순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처지게 하고 붙들고 있는 바람에 비생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어 새로 시작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의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낸

목표를 세우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일과 영광을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모세서 1:39)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면 우리 안의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 비록 정해 놓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여행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식구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거나 상을 받은 일과 같이,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결심과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꾸물대는 버릇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이나 여름이 시작될 때, 또는 감독이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을 때, 혹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나 은퇴한 후와 같이 시작하기에 알맞은 순간을 기다리다가 시작을 미룹니다.

여러분은 굳이 권유를 받지 않더라도 의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되어서 할 사람이 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권유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택함받기를 기다리며 인생의 여러 해를 낭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1:34~36 참조)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택함을 받았습시다!

제 인생에서도 여러 문제나 걱정, 또는 개인적인 슬픔과 씨름하느라 잠 못 이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저는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늘 용기를 냈습니다.

모든 새로운 하루는 대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새벽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은 새로운 시작, 즉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가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발전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비록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는 포기하고 맙니다.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의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는 대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 지금 당장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부족한 순간이 한 번쯤 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 사실을 알면 실패의 충격과 실망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에 접근하면, 실패에 대한 생각이 더는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은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목적지에 닿지 못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중요하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정해 놓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여행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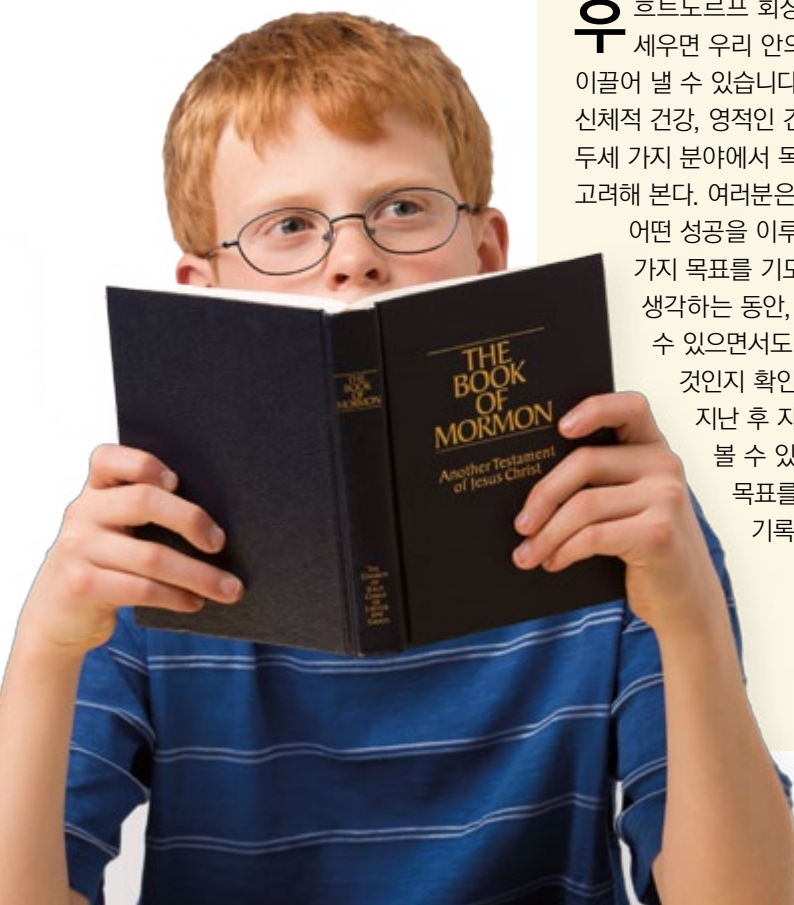
오래된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란 단어에는 놀랍고도 희망 찬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결심만 한다면, 바로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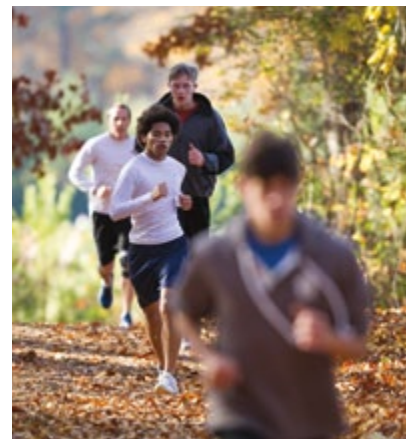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20년 후뿐 아니라 영원을 두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

청소년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하라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면 우리 안의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 신체적 건강, 영적 건강, 우정과 같은 두세 가지 분야에서 목표를 세울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은 올해 이들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은가? 몇 가지 목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동안,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인지 확인해 본다. 한 해가 지난 후 자신이 이룬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일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전할지 알기 위해 노력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구주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모범

이 방문 교육 메시지는 구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 측면을 특집으로 다룬 연재 기사 중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려는 소망을 키울 수 있다. 경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권고로 가득하다. 그리스도는 니파이인에게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은 구주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라고 상기시킨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각자가 마음 깊이 속죄의 교리를 새긴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¹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며, 힘이 되십니다.”²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성구에서

니파이후서 31:16; 앨마서 17:11; 제3니파이 27:27; 모로나이서 7:48

주

1. 린다 케이 버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마음에 새겼는가?”,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4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삶의 고난을 헤치며”,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71쪽.
3.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4.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행복, 여러분의 유산”, *리아호나*, 2008년 11월, 120쪽.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2대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에 대해 “주님은 길을 보여 주시고 앞장 서셨습니다.”라고 기록했다.³ 그분은 사람들을 한 번에 한 사람씩 보살피셨다. 그분은 우리가 아흔아홉을 두고 길 잃은 하나를 구하러 나서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누가복음 15:3~7 참조) 그분은 2,500명의 무리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각각에게 일일이 시간을 내어 고쳐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다.(제3니파이 11:13~15; 17:25 참조)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후기 성도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훌륭한 자매님들은 이웃에게 사랑이 가득한 봉사를 베풀 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은 구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남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리고 어떻게 나의 모범이 되시는가?

2. 방문하는 자매들을 돌보는 일은 구주를 따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2013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3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약속: 시련에 맞섬

“기 빠할 만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헤쳐 나가야 하는 시련을 이겨 낼 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강인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가슴이 에이는 슬픔을 경험하거나 비탄에 젖거나 극한까지 시험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삶을 재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즉, 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이해력이 커지며, 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더 큰 간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햇빛과 슬픔 속을 헤쳐 나갈 때 참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나 풀어야 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목표인 영생을 향해 거의, 또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7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각각의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우리는 신앙개조에서 어떤 교리들을 배우니까? 엘 톰 페리,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 참조
-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엠 러셀 벨라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참조
- 십일조는 어떻게 쓰입니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하늘 문” 참조
- 죄와 반항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의 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쿠엔틴 엘 쿡, “예레미야애가: 속박을 조심하라” 참조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church.org



가서 행하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때 연차
대회에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1.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



2. “집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생활[한다.]”

“연차 대회: 신앙과 간증을 강화함”,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7쪽에서 발췌.

여성과 신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신권
의식은 왜 남자들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만큼, 또한 우리는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남녀의 성별이 현세와
영원에 걸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임을 압니다.
성별에 따라 우리는 각자 거룩한 책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주님께서 그분의
신권이 집행되는 방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의 주 12번에서 앤더슨
장로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선지자들의
답변을 인용하셨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교회의
남성들이 신권을 갖도록 제정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셨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를
왜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쪽에서
발췌.

빈칸 채우기

1. “성약을 지키는 자들은 _____을 지킵니다!” (린다 케
이 버튼, “성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힘과 기쁨, 그리고 사
랑”,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13쪽)
2. “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_____을 듣고 그분의 _____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끌려 오고 있습니다.”(제럴드 코세, “너희
는 나그네도 아니요”,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0쪽)
3. “의로움의 힘은 _____보다 더 강합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보호의 열쇠”, *리아호나*, 2013년 11월
호, 27쪽)
4. “사내다움과 여성스러움의 차이를 왜곡하다 보면 서로 다
르면서도 상호보완하는 _____과 _____이란
은사를 잃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할 때 더 훌륭한
완전체가 됩니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여성의 도덕
적 힘”,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31쪽)

3. 사랑, 기쁨, 영성, 평화, 용서, 용서, 용서
1. 믿음, 기쁨, 사랑, 평화, 용서, 용서, 용서
2. 사랑, 기쁨, 영성, 평화, 용서, 용서, 용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익명

나는 살아오는 동안 행복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몇 년 전 나는 교회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오만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나는 나의 행동 때문에 참으로 괴로웠다. 사랑하던 여자와의 약혼은 취소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으며, 행복하지 않았다.

그때보다 훨씬 이전에 겸손하기로 마음먹었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했지만, 나는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겸손해졌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 자주 경전을 읽고, 더 자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간과해 온 관계들을 회복하려 노력했는데, 그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갈망했다.

어느 이른 아침, 학교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는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동쪽 지평선은 빛이 났고 서쪽

지평선은 어두웠으며, 보름달이 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운전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날 아침 차를 모는 동안 기도를 하자 마음이 밝아졌으며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내 삶이 동쪽 지평선처럼 빛나고 있으며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둠이 사라지고 있었고, 보름달처럼 컸던 내 죄도 지는 중이었다.



회개를 통한 행복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반기십니다.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고,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행복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옵니다.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닐 엘 앤더슨 장로, “The Joy of Becoming Clean”, *Ensign*, 1995년 4월호, 51쪽.



아직 완전히 떨쳐 낸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회개를 계속한다면 곧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는 내 삶이 한낮처럼 밝아지리라는 소망이 생겼다.

시간이 감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기도로 간구하면서 나는 더 겸손해졌다. 더욱 겸손해지자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 이기심 없이 섬기게 되었고, 영생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졌다. 그 소망이 자라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의한 것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신앙 또한 커졌다. 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모로나아서 7:41)라는 물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

회개의 조건은 무엇인가?

선지자 힐라맨은 회개에는 조건이 있다고 가르쳤다.

“주께서 정녕 그 백성을 구속하시러 오실 것이어니와 그가 오심은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구속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

또 그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주의 권능, 곧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힐라맨서 5:10~11; 강조체 추가)

그러한 조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성구들을 공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로마서 3:23; 니파이전서 10:21; 니파이후서 2:8; 모사이야서 4:9~10; 교리와 성약 58:42~43.

구주의 성역이나 사명과 관련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가능한 주제에는 속죄, 자비, 치유, 희망 또는 회개 등이 포함됩니다. 기사를 6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라는 제목으로 liahona.lds.org로,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아담

“영원을 두고 인간 아담보다 구원의 계획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없다.”¹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지상에 살았던 최초의 인간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지상에 오기 전에 저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에서 저는 천국 전쟁에 참여하여 사탄의 군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었고,²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일도 도왔습니다.³ 당시 저는 미가엘로 알려졌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이”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지상에 거하는 최초의 인간으로 선택하셨으며,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있는 낙원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생기”⁵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⁶

하나님께서서는 제 아내 이브와 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⁷ 우리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머물며 영원히 살 수 있었겠지만, “필멸의 세상에서 반대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발전”⁸은 얻지 못했을 것이고

자녀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⁹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고, 인생의 선과

악을 모두 경험했으며, 지상에 자녀를 데려왔습니다.¹⁰

하나님께서서는 타락이 있을 것을 아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을



이김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¹¹

이브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웠으며,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¹²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눈이 열리고, 이생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¹³ 제가 배웠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¹⁴ ■

주

1. 로버트 엘 밀렛, "인간 아담", 성도의 빛, 1998년 2월호, 14쪽.
2. 요한계시록 12:7~8 참조.
3. 로버트 엘 밀렛, "인간 아담", 16쪽 참조.
4. 경전 안내서, "미가엘"
5. 창세기 2:7.
6. 모세서 1:34 참조.
7. 창세기 2:16~17; 모세서 3:16~17 참조.
8.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49쪽.
9. 니파이후서 2:22~23 참조.
10. 모세서 4:22~31; 5:10~11; 엘마서 12:21~27 참조.
11. 요한복음 3:16~17; 고린도전서 15:22; 니파이후서 9:21; 엘마서 42:2~15 참조.
12. 모세서 5:1~12, 58: 6:51~67 참조.
13. 모세서 5:10 참조.
14. 모사이아서 27:25~26 참조.
15. 교리와 성약 27:11 참조.
16. 창세기 5:5 참조.
17. 교리와 성약 116:1; 다니엘 7:9~14 참조.
18. 교리와 성약 29:26 참조.
19. 교리와 성약 88:114~16 참조.



왼쪽부터, 덴 백스터 작: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로 웰 브루스 베넷 작: 에덴 동산을 떠남, 조셉 브릭키 작: 비유, 조셉 브릭키 작: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담과 이브, 델 파슨 작: 셋을 성임하는 아담, 델 파슨 작: 아담 온 다이 아만, 델 파슨 작: 사탄을 물리치는 천사장 미가엘, 귀도 레니 작/ BRIDGEMAN ART LIBRARY/ GETTY IMAGES; 배경 (STOCKPHOTO/THINKSTOCK)

아담에 관한 사실

이름: 아담, 아버지 아담, 옛적부터 있던 자, 미가엘¹⁵

사망 시 나이: 930세¹⁶

전세에서 맡았던 역할: 사탄에 맞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을 도움.

지상에서 맡았던 역할: 족장, 남편, 아버지, 타락이 초래되는 것을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

내세에서 하게 될 역할: 아담 온다이 아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방문할 것임¹⁷, 부활을 도움 것임¹⁸, 사탄에 맞서 최후의 전쟁을 이끌 것임.¹⁹



고든 비 힝클리
(1910~2008) 회장
제15대 교회 회장

거룩한 신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종교의 중추가 됩니다.

제15대 교회 회장인 고든 비 힝클리는 1910년 6월 23일에 태어났다. 그는 51세인 1961년 10월 5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1995년 3월 12일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중요한 교리들을 공표하면서 이를 첫 번 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05)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선언들은 주님이 기도에서 하신 말씀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요 제 영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실재하시며, 하나의 독립체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2)

또 그분은 지구의 창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26).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제가 선교사로서 [영국 런던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유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요한복음(4:24)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랑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는 거요?’”

저는 성경을 펴서 그가 인용한 구절을 전체를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죠. 선생님이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존재이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영적 개체와 육체적 개체를 지닌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이

실재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은 독립된 개체로 계속 존재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거룩한 계획에 따라 영과 육이 재결합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육신을 지니셨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와 능력이 있으며, 아름답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육신과 제 육신을 대등하게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육신은 영원하나 제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그분에 대한 제 존경심을 키울 뿐입니다. …… 저는 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십니다. ……

그분의 사랑은 모든 자녀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분의 아들딸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요, 육체를 가지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된 개체인 그분을 믿습니다. ……

저는 그분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과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인류에게 승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권에는 거룩한 권세, 즉 축복의 권능, 병 고침의 권능, 지상의 제반 문제를 다스리는 권능,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목숨을 바치신 속죄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악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한 그 권능을 믿습니다. …… 저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은사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모든 남녀에게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과 승영을 얻을 기회가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그토록 위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희생에 필적할 만한 희생을 치른 적은 없었으며, 그러한 축복에 필적할 만한 축복을 주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그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

경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으며,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관해 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륜의 시대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셨으며, 그분을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이분이 바로 제가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신

그 지식은 경전의 말씀에 나오며, 그러한 간증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나옵니다. 이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이 계시해 주시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는 성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한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영의 인격체이며, 이 세 분이 거룩한 신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

고대에도 성신이 신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와 아나니아 사이에 있었던 다음 대화에서 입증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사도행전 5:3~4).

성신은 ……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구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는, 구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성신은 인간이 서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증인이십니다. …… 물문경의 참됨을 아는 지식은 “성신의 권능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4~5)

저는 이 권능, 이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분

……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결혼했습니다. 이분들의 실재성과 개별성에 관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그 개별성은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물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아들임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신이 비둘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마태복음 3:16~17 참조)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요한복음 14:9 참조] 아들이 부모를 닮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그분들은 별개의 개체이지만 목적과 일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원대하고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사도들에 대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청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한복음 17:20~21).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런 완전한 하나됨은 거룩한 신회를 이루는 세 분을 하나로 묶습니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성도의 빛, 1998년 3월호, 3~9쪽에서.

안식일 준수

일 요일은 많은 사람에게 휴식과 오락을 위한 주말의 하루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고대와 현대의 계시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다. 이번 호 56~57쪽에서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인 래리 엠 깁슨 형제는 안식일 준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깁슨 형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배우는 동안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신성한 계명을 따르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영감을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라고 깁슨 형제가 말했듯이 말이다.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한 제언

- 56~57쪽에 있는 깁슨 형제의 기사를 함께 읽는다. 그런 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이 매주 할 수 있는 일을 토론한다. 가정의 밤에서 “블러라 고요히 성가”(찬송가, 94장), 혹은 안식일에 대한 다른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분의 가족이 일요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한다.

- 십 대 자녀와 함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안식일 부분과 끝에 나열된 성구를 읽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다른 성구를 함께 찾아보고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원리들에 대해 토론해도 좋다.
- 청소년 교과 과정이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면 그 공과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된 기사나 비디오를 찾아본다. lds.org/youth/learn을 클릭한다. 계명에 관한 9월 공과가 이 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

- 2013년 10월호 *리아호나*에서 “새내기 집사”를 읽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2010년 3월호 *리아호나*의 “경건에 대한 교훈”을 읽고 함께 그 기사에 실린 활동을 해도 좋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경건한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 여러분의 가족이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



이 주제에 관한 성구

- 출애굽기 20:8~11
- 이사야 58:13~14
- 고린도전서 11:23~26
- 제3니파이 18:3~11
- 모로나이서 6:4~6.
- 교리와 성약 59:9~13

해 토론한다. 2012년 3월호 *리아호나*의 “지금 바로 결정하십시오”를 읽고 어려운 상황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의 예를 살펴봐도 좋다.

-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어린이 노래책, 105쪽)을 비롯하여 안식일과 관련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일요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과 주중의 다른 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설계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사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소망으로

미래를 맞이하라

세상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세계 경제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우리의 기술과 재능을 새롭고 즐겁게 일하는 방식을 창조하는 데 쓰도록 격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택의지를 제한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표준은 무너지고 있으며, 가족이 공격당하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식고 비정상적이 되어 갑니다.(마태복음 24:12; 로마서 1:31 참조) 정계 및 경제계, 다른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고결성, 정직, 의로움은 계속해서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라와 종파 사이에 만연합니다. 어떤 무력 분쟁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선과 악 사이의 전쟁, 즉 하나님 자녀의 영혼을 두고 구주와 그분의 빛의 군대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악한 어둠의 무리에 맞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20~2008) 회장님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받을 디더야 하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나운 사람들이 잔인하고 비열한 일을 서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과 외설물이 만연한 부도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이 우리 사회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발적인 악의 모습을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본 적도 없었습니다.”¹

우리 시대의 상황에 대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전과 계시가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불쾌한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악한 간계를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를 보고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보았던 고대 선지자들은 이 시대가 세상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빛과 경이로움의 시대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전달하길 바라시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 인도를 구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위로와 확신에 찬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8:18)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길 바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믿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열세 살 소년이었을 때 일요일 신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은 1941년 12월 7일이었는데, 부모님께서서는 방금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다는 소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미 유럽에서 두 해 동안 극심하게 치러 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삶은 끝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이 징집되었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갖 갈등과 분쟁과 사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여전히 선이 차지하는 자리는 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신앙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설계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사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어둠과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회원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이 싸움에 동참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일상에서 하게 될 다른 모든 일과 더불어 우리는

또한 주님의 대의를 위해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헌납하고, 믿음으로 걸으며, 확신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낙관적으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성장과 변형과 풍요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대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국제적 위기가 없다면,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통신, 의학, 에너지, 운송, 물리학, 컴퓨터 기술 및 다른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이러한 발견의 상당수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이 속삭여 주는 통찰력과 깨달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과 발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와 변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과거의 중요한 국가적, 국제적 경제 성장의 시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밖에도, 이러한 발견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성취하고 또 선교 사업을 통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다하십시오

구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복음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이 선언했듯이 “어떤 부정확한 손도 이 사업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격심해지고, 폭도의 무리가 연합하고, 군대가 소집되고, 비망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결하게, 독자적으로 나아가 모든 대륙을 지나고, 모든 지방에 들어가며, 모든 나라를 휩쓸어 모든 귀에 울릴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위대한 여호와께는 이 사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²

영적으로 굶주린 수십억의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 국적의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복천년 전에 교회가 성장한다고 예언되어 있듯이 새로운 예배당과 더 많은 성전이 세워져서 성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적 자원은 어디서 나오지?” 하고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자원은 충실한 회원들의



이러한 발견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성취하고 또 선교 사업을 통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영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도록 지혜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그리하여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 하늘의 문이 정말로 열려서 “썩을 곳이 없도록 [부어]”(말라기 3:10) 주시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청년 성인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현세적인 축복을 활발히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변영에는 그들의 영적인 중심을 시험하는 독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영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기술을 재정적인 성공으로 변환하는 동안 여러분은 늘 욕망과 필요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고 얻으려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만족이나 사람들의 인정, 또는 권력이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을 도우려고 힘쓰는 데 여러분의 동기가 있습니까?

자신의 자아를 세우기 위해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화를 지키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잃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히라만서 13:31 참조) 그들 영혼의 복리는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니파이에게 순종적이었던 동생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은총의 손길이 너희 위에 극히 기쁜 미소를 지은지라, 너희가 많은 부를 얻었으되, 너희 중 몇몇이 너희 형제들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며, 너희 의복의 값짐으로 인하여 목을 뻗뻗하게 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너희가 너희 형제들보다 낫다 생각하여 그들을 꺾박하는도다.

……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줄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너희를 정죄하시나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고집하면 그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 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않게 하면 좋겠도다!”(야곱서 2:13, 14, 16)

그런 후 야곱은 부를 구하려는 우리의 동기에 대해 약속과

더불어 올바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벗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구하라.”(야곱서 2:18~19)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하면 안 된다거나 번영이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늘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구하고 찾으려, 심긴 후에야 번영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며,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얻은 부를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데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위해 부를 추구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며, 마음이 공허하고, 진정한 행복과 향구적인 기쁨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맞게 될 신앙의 시험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받는 현세적 축복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시험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대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44)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거의 6천 년 동안 여러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돕도록 아껴 두신 그분의 가장 강한 …… 자녀 중 일부[입니다.]”³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한 자녀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며, 그분은 ‘이 때를 위해’[에스더 4:14]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려고 아껴 오셨습니다.”⁴

이 마지막 날의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니파이후서 25:17)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니파이후서 31:20) 부지런히 찾고, 항상 기도하며, 믿는다면, 주님께서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기뻐하라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려올지라도, 역경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르게 걷고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를 지탱하게 해 주고 위로해 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헌신하고 헌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높이 세우는 데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시간과 재능을 헌납하겠다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 소망으로 매일 아침을 열정으로 맞이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빠르게 길을 잃고 있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과 주님에 대한 신뢰로 그것들을 극복할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리적인 요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때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낙관적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믿는 신앙을 유지한다.
- 하나님 아버지를 생활의 최우선에 둔다.
-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납한다.



제 메시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미래를 마음에 그리도록 도우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밝은 미래에 대해 신앙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젊은 남성은 미래의 아버지입니다. 젊은 여성은 미래의 어머니요 양육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베드로전서 2:9)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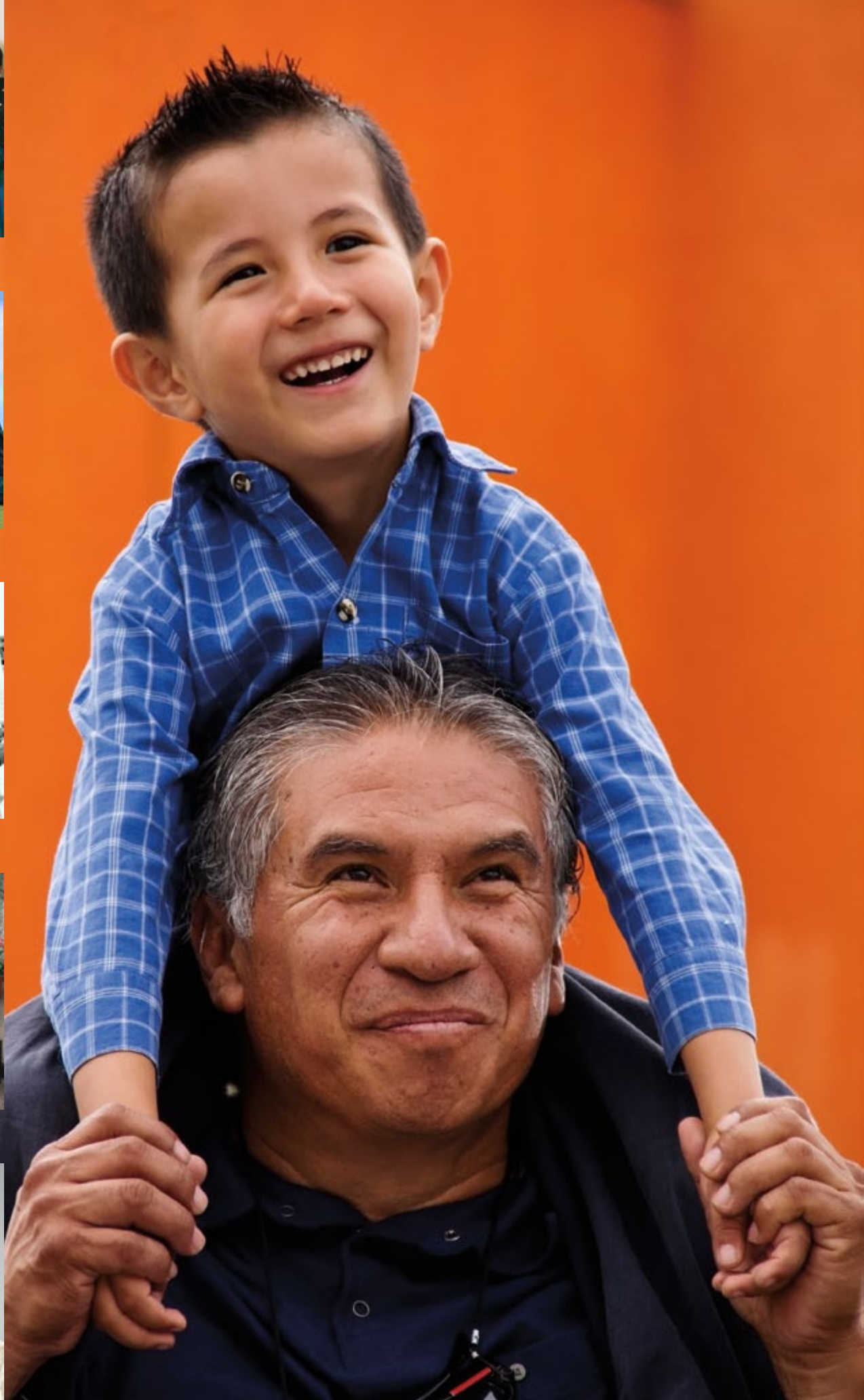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결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가는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도움을 주는 동반자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의 몫을 행해야 합니다. ■

2012년 4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졸업식 연설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때가 찬 시대를 살아가며”,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42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토마스 에스 몬슨의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2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7쪽.



멕시코 탐방

고난에서 강인함으로

멕시코의 후기 성도들은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샬리 존슨 오드커크
교회 잡지

19 45년 11월 6일, 기도의 응답으로 멕시코 후기 성도 중 첫 번째 일행이 모국어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 도착했다. 당시 몬테레이 지부 회장이던 호세 가르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조상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 우리 중에는 희생을 치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기쁘게 여깁니다.”¹

가르시아 회장과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회복된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초기의 멕시코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따른 것이다.

사진: 상화, 이스라엘 구타에레스, 인종 위예서부터: 사진: 상화, 크레이그 다이먼드;
사진 © GETTY IMAGES;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
사진, 샬리 존슨 오드커크; 사진: 상화, 웬든 시 앤더슨

기초를 놓음

산과 사막, 밀림과 멋진 해안선이 있는 땅, 고대 멕시코는 아름다운 성전과 도시를 세웠던 백성들의 고향이었다. 수 세기에 걸쳐 멕시코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신앙과 기도라는 강한 기초를 닦았다.

성도들이 유태에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 멕시코인들은 교회와 주를 분리하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포함하여 사회를 재편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최초의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가 멕시코에 전해진 해는 1876년이였다. 선교사들은 물론경에서 발췌한 부분들을 들고 다녔으며, 이를 멕시코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멕시코를 방문하여 더 써드 컨벤션(Third Convention)에 손을 내밀며 회원들이 단합하도록 도왔다.

1810: 멕시코가 독립을 선언하고 1821년에는 300년 동안의 스페인 식민 통치에서 독립함.

1830: 미국 뉴욕 팔마이러에서 물론경이 출판되고 교회가 조직되다.



1846~1848: 멕시코 미국 전쟁. 물론 개척자들이 미국 서부에 정착하다.



1857~1861: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이 멕시코 정부를 개혁하고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다.

저명한 지도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곧 침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1881년 4월 6일에 열린 교회의 특별 대회 중에 지부 회장이었던 실비아노 아르티가 회장과 몇몇 일선 지도자들 및 모지스 대처(1842~1909) 사도가 포포카테페틀 화산의 언덕에 올랐다. 그런 후 대처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땅을 헌납했다.

그 대회에서 아르티가 회장이 기도를 했는데, 대처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가 자기 종족과 백성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안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 나는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영으로 이해하는 듯이 느껴졌다.”²

같은 기간에 그 지역에는 몇 개의 지부가 세워졌다. 이달고주에 사는 연로한 미망인 테시데리아 야네즈는 팔리 피 프렛의 소책자 *A Voice of Warning*(경고의 음성)에 관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책자를 구해 오도록 아들을 멕시코시티로 보냈다. 그녀는 1880년에 교회에 가입했으며, 멕시코에서 교회에 가입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³

그 이후로 멕시코에는 수십 년에 걸친 혁명과 핍박, 빈곤과 소외 속에서도 충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간 교회 회원들이 많았다.⁴

충실한 개척자들의 모범

이러한 충실함의 한 예를 1907년에 조직된 산 페드로 마티르의 지부에서 볼 수 있다. 초기 회원들은 멕시코시티 남쪽에 있는, 새로 침례받은 회원인 아구스틴 아로가 지은 벽돌집에서 모임을 했다. 그는 지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최소 백만 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잃은 멕시코 혁명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전쟁터가 된 그들의 주를 떠나 산 페드로로 피난을 왔다. 산 페드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동정 어린 봉사로 난민들을 돌보았다.⁵



회원들은 또한 레이 엘 프랫과 같이 헌신적인 지도자들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 그는 1907년 멕시코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은 이래 193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직에서 봉사했다. 그는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강화하는 동안 그는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멕시코인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려는 프랫 회장의 노력이 특별히 더 빛을 발한 것은 1926년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에서 외국인이 교회 신도들을 감리하지 못하게 하는

진행되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장로는 미국 애리조나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후, 이렇게 말씀했다. “성전 의식에 영어만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⁸ 칠십인 정원회의 양투안 알 이빈스 장로와 교회 번역부의 에두아르도 발데라스는 성전 의식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부탁받았다. 이 번역으로 다른 나라에 세워질 성전에 선례를 마련하게 되었다.⁹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스페인어로 성전



1875: 몰몬경의 일부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다.

1876: 최초의 선교사들이 멕시코에 도착하다.



1881: 특별 대회가 열리다. 모지스 대처 사도가 선교 사업을 위해 땅을 헌납.



1885: 멕시코에 몰몬 정착지들이 세워지다.

1886: 몰몬경 전체가 스페인어로 출판되다.

주님의 호감을 사는 백성

“현재의 고난 속에서 더 위대하고 더 나은 멕시코가 자라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 마련될 것이며, 복음은 그들의 구속을 가져오고 그들이 주님의 호감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¹⁷

레이 엘 프랫, 멕시코 혁명 기간 중의 멕시코 선교부 회장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였다.⁶ 그 시기에 일단의 회원들은 더 써드 컨벤션(Third Convention)이란 조직을 만들어 지도자들을 부르고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다.

기초 위에 세움

아웰 엘 피어스는 1942년에 멕시코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치와와에서 자라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어스 회장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고, 단합하게 하면서 사랑과 이해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더 써드 컨벤션 조직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했다.

피어스 회장의 목표 중 하나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도록 돕는 것이었다.⁷ 1943년에는 더 많은 회원이 성전 축복을 받도록 도우려는 노력이

초기 회원들은 종종 복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놀라운 미래

“저는 미래에 멕시코의 교회가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들이 바라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원하며, 또 복음이 주는 것을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고자 합니다.”¹⁸

대니얼 엘 존슨, 멕시코 지역 회장

의식이 진행되었고,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이 1946년에 멕시코 성도들의 단합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자¹⁰ 교회는 이전 세대들의 상상 속에만 있었던 방식으로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나라 곳곳에 새로운 선교부와 스테이크가 생겼고, 교회가 후원하는 학교들은 교육을 장려했다.

교회는 1964년에 미국 공로 교육 센터(El Centro Escolar Benemérito de las Américas-교회 소유의 고등학교)를 헌납했다. 이 학교는 회원들의 교육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이 대회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¹³ 라며 입을 모았다.

멕시코의 1970년대는 역동적인 성장의 시기였다. 1970년에 멕시코에는 약 7만여 회원이 있었는데, 1979년에는 그 수가 거의 25만 명에 이르렀다. 지역 대회가 있고 3년 후, 하워드 더블유크터(1907~1995) 회장은 한 주 동안 기존의 세 개 스테이크를 15개로 분리하고 많은 젊은 멕시코 회원들을 지도자로 불렀다.¹⁴

1889: 선교사들이 멕시코 중앙 지역에서 철수하다.

1901: 멕시코시티 지역에서 전도가 다시 시작되다.

1910: 멕시코 혁명이 시작되다.



1913: 혁명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하다. 선교부 회장인 레이 엘 프랫 회장이 통신문을 통해 멕시코의 교회를 이끌고, 미국 내의 스페인어 사용자들과 함께 일했다.

1912: 멕시코 북부의 몰몬 정착지에서 성도들이 탈출하다.

사회적, 영적 필요를 충족하고 지도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으며, 2013년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되었다.¹¹ 이 학교를 졸업한 로레나 고메즈 알바레즈 자매는 말한다. “그곳에서 저는 재능을 찾고 키울 수 있었어요. 제 삶에 축복이 된 복음에 대한 바탕과 지식을 얻게 되었죠. 이제 이곳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돕고 전파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¹²

성장의 시대

1972년에 열린 멕시코시티 지역 대회는 교회의 성장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회원들은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과 그의 보좌들, 여러 사도와 다른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했다. 태버네클 합창단이 그곳에서 공연하여 영적인 잔치의

이 시기 동안 선교 사업도 확대되었다. 1879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멕시코 선교부는 1956년에 두 개로 처음 나뉘었는데, 현재 멕시코에는 34개의 선교부가 있다.¹⁵ 1980년대에 멕시코시티 북 선교부에서 봉사한 호르헤 사모라 형제는 그 성장을 목격했다. 그는 회원들이 교회까지 한 시간을 걸러 가야 했던, 선교부 내의 한 지역을 기억한다. 이제 그곳에는 스테이크가 들어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라와 문화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 놀랍기만 합니다.”

온 땅에 성전이 퍼져 나가고

멕시코의 회원들은 성전의 구원 의식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희생을 마다 하지 않는다.





멕시코 회원들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이 회원들은 2007년에 나무 심는 일을 도왔다.

아그리콜 로자노 에레라: 최초의 멕시코인 스테이크 회장

아그리콜 로자노 에레라는 젊은 시절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던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이 멕시코의 회원에게 조국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들었다. 로자노 형제는 변호사가 되어 조국의 토착민들을 변호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멕시코 교회의 법률 고문이기도 했으며 최초의 멕시코인 스테이크 회장 및 선교 회장으로서 봉사했고, 십이사도에 대한 지역 대표와 멕시코시티 성전 회장을 역임했다.¹⁹



1921: 선교사들이 멕시코시티 지역에 다시 배치되다.

1926: 멕시코 민족주의로 모든 외국인 성직자들이 추방되다.

1930: 현지 지도자들이 멕시코 내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다.



1945: 성전 의식이 스페인어로 번역되다. 애리조나 메사 성전으로 단체 여행이 시작되다.



대체 장로가 선교 사업을 위해 그 땅을 헌납한 지 100년이 갓 넘었을 때 멕시코시티에 성전이 세워졌다. 1983년에 거행된 성전 일반 공개 때 수천 명이 성전을 다녀갔으며,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 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30년이 채 못 되어 온 나라에는 11곳의 성전이 더 헌납되었으며, 한 곳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탐피코에서 자란 이사벨 레데즈마는 부모님이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인봉 받은 때를 기억한다. 그녀는 “애리조나까지 가는 데는 이들이 걸렸고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라고 말한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이 헌납되자 성전까지 가는 시간은 차로 열두 시간밖에 안 걸리게 되었지요. 이제는 성전이 탐피코에 있어서 자주 갈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멕시코 오악사카

성전 회장으로 봉사한 림하이 온티베로스는 말한다. “복음에 대해 깊고 변치 않는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와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성전에 올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성전을 피난처의 불빛으로 생각하죠.”

레데즈마 자매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 도시에는 영이 필요한데 이곳의 성전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나 슬플 때 성전이 가까이 있기에 그곳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역경을 이김

멕시코의 회원들 또한 보편적인 어려움과 유혹에 처하지만 그들은 자신과 동료 성도들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 경제적 상태나 사회적 지위는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멘데즈 가족은 멕시코 남부의 도시 오악사카에 가까운 작은 산골 마을에 산다. 그들은 “시간, 재정, 거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구주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어떤 장애든 극복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열다섯 살인 곤잘로 멘데즈는 이렇게 말한다. “위험이 도사린 곳에 살면서 유혹을 이겨 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도움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증인으로 당당히 서 있지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하이메는 “청남들에게 신권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저는 알아요.”라고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최근에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칸쿤 시의 세 개 스테이크에서 온 청소년들을 만났다. 청소년들과 만났던 시간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서 빛을, 얼굴에서는 희망과 꿈을 보았습니다. 저는 멕시코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¹⁶ ■

1946: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멕시코를 방문하다.



1950년대: 대부분의 멕시코 주에 지방부와 지부가 세워지다.

1961: 멕시코시티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해롤드 브라운이 회장으로 부름받다.



1964: 미국 공로 교육 센터(Benemérito 학교)가 멕시코시티에 설립되다.

1967: 멕시코시티의 두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아그리콜 로자노 에레라가 최초의 멕시코인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다.

1972: 멕시코시티 지역 대회



미래를 내다봄

멕시코에 복음이 뿌리 내린 지는 오래되었지만, 교회에는 아직도 발전 중인 부분이 있다. 열다섯 살인 하이메 크루즈와 그 가족은 오악사카 시 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다. 하이메와 친구 곤잘로는 주중에 세미나리 가정 학습 과정을 공부한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두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와드의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세미나리 수업에 참석한다. 하이메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들을 급우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집사인 하이메의 동생 알렉스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알렉스는 나쁜 말을 사용하지 말라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지 말라고 친절하게 말하면 친구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듣는다고 말한다. 하이메와 알렉스는 모두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며, 그것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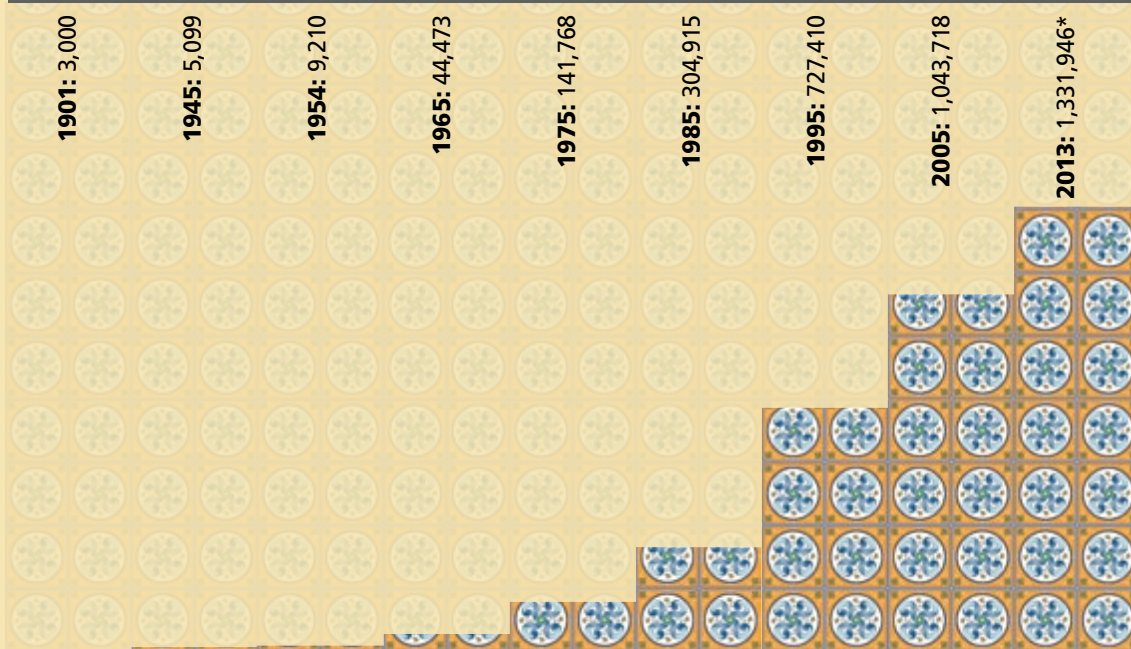


주

1. Henry A. Smith, “200 Lamanites Gather in History-Making Conference, Temple Sessions,” *Church News*, Nov. 10, 1945, 8.
2. Moses Thatcher, *Moses Thatcher Journal*, 1866-1868, 54.
3. Brittany A. Chapman and Richard E. Turley Jr., *Women of Faith in the Latter Days*, vol. 1, 1775-1820, 461-470 참조.
4. Orson Scott Card, “It’s a Young Church in ... Mexico,” *Ensign*, Feb. 1977, 17-24 참조.
5. Kirk Henriksen, “Mexican Mormon Pioneers”,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방문자 센터에 2010년 전시.
6. Gerry R. Flake, “Mormons in Mexico: The First 96 Years,” *Ensign*, Sept. 1972, 20-21 참조.
7. F. LaMond Tullis, “A Shepherd to Mexico’s Saints: Arwell L. Pierce and the Third Convention”, *BYU Studies* vol. 37, no. 1 (1997): 127-151.
8. Eduardo Balderas, “Northward to Mesa,” *Ensign*, Sept. 1972, 30 참조.
9. Eduardo Balderas, “Northward to Mesa,” 30-31 참조.
10. “The Church Moves On,” *Improvement Era*, July 1946, 446; John D. Giles, “Father Lehi’s Children,” *Improvement Era*, Sept. 1946, 556 참조.
11. Joseph Walker, “Missionary surge prompts LDS Church to open new MTC in Mexico,” *Deseret News*, Jan. 30, 2013, www.deseretnews.com 참조.
12. 이 인용문과 이어지는 멕시코 교회 회원들의 이야기는 2013년 2월 7일에 했던 인터뷰에서 발췌했다.
13. Jay M. Todd, “The Remarkable Mexico City Area Conference.”



멕시코 교회의 성장



성전: 12개,
티후아나에 또
하나의 성전이
발표됨.
스테이크: 222개
지방부: 36개
와드 및 지부:
2,000개
선교부: 35개

* 2013년 6월 현재

1975: 멕시코의
몇몇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다.



1983: 멕시코시티 성전이
헌납되다.

1993:
멕시코에서
교회가
법적으로
승인받다.

2000: 아홉 개의 소규모
성전이 헌납되다.



2009:
멕시코인으로만
구성된 지역
회장단이 최초로
부름받다.



2013: 멕시코시티에 선교사
훈련원이 설립되다.

Ensign, Nov. 1972, 88.

14.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202 참조.
15. Don L. Searle, "One Million in Mexico," *Ensign*, July 2004, 34; Kristine Miner, "The Church in Oaxaca, Mexico," *Ensign*, Apr. 2001, 78 참조.
16. 시청각부와의 2012년 4월 인터뷰에서.
17. Rey L. Pratt, in *The Young Woman's Journal*, vol. 25, no. 9 (1914), 539.
18. 2013년 4월 5일 인터뷰에서 발췌.
19. "Agricol Lozano Herrera: Mexican Mormon Church Leader", <http://mittromneymormon.net/meet-some-mormons-2/meet-some-mormons-2/agricol-lozano-herrera-mexican-mormon-church-leader> 참조.



오악사카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



Joseph Fielding Smith

참되고 충실함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와 가르침이 주는 감동

호이트 더블유 브루스터 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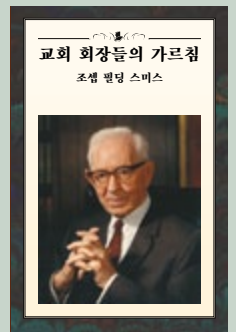
서른세 살의 조셉 필딩 스미스가 1910년 4월 6일에 연차 대회에 참석하려고 솔트레이크의 태버내클에 들어서자 안내자가 말을 걸었다. “조셉 형제님, 누가 새로운 사도가 될까요?”

조셉이 대답했다. “모르죠. 하지만 당신도 아니고 저도 아닐 겁니다!”¹

십이사도의 이름이 지지를 받기 위해 불려지는 동안 조셉은 갑자기 다음에 자기 이름이 불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현실이 되었으며, 조셉 필딩은 정원회의 열두 번째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조셉의 겸손함과 유머 감각은 대회에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새 부름에 대해 알려줄 때 잘 드러난다. 조셉은 수수께끼 같은 말로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다. “소를 팔아야 할 것 같소.” 당연히,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다. 대답은 간단했다. “더는 소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 말이요!”² 60년 이상 지속된 그의 사도 직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이럼 스미스의 손자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0대 회장이다. 조셉 필딩이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한 기간은 다른 어떤 교회 회장보다도 길었다. 스미스 회장은 그 특별한 증인들의 정원회 일원으로 60년간 봉사하는 동안 처음에는 말과 마차를, 그다음엔 자동차를, 또 그다음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성도들을 가르쳤다. 스미스 회장의 설교와 수많은 저서는 그분의 영감에 찬 말씀을 들으려는 모든 사람과 교회에 축복이 되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과 맺은 성약을 기억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언제나 참되고 충실합시다.”



위: 어린 조셉 필딩 스미스의 이 사진은 그의 부모의 가족 성경에 끼워져 있었다. 오른쪽: 조셉은 형제인 데이빗과 함께 핸드볼을 즐겼다. 아래: 1901년 영국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스미스 장로(왼쪽에서 두 번째). 반대쪽 면의 사진도 선교사 시절의 모습이다. 아래, 오른쪽: 동료 사도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및 이스라엘 스미스와 함께한 스미스 장로(왼쪽), 1936년.



나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과의 관계 덕분에 이 기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그분을 정답게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의 삶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분은 나에게 유아 축복과 명명을 해 주셨고, 나는 그분의 장례식에서 사촌들과 함께 그분의 관을 운구했다.

예임된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조셉 필딩 스미스는 주님의 거룩한 시간표에 따라 지상에 오도록 예임되었다.(사도행전 17:26 참조) 조셉은 줄리나 램슨 스미스의 네 번째 자녀이자 첫 아들이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충실한 어머니 한나와 같은 겸손한 영을 지닌(사무엘상 1:11 참조) 줄리나는 주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가 주님과 자신의 아비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모든 일을 다하겠다.”³고 주님께 약속했다. 주님은 그녀의 청원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그분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⁴

조셉은 1876년 7월 19일, 조셉 에프 스미스와 줄리나 램슨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때 조셉의 부친은 사도이자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생후 9개월이 된 조셉을 유타 세인트조지 성전 헌납식에 데려가셨다. 나중에 그는 “내가 최초로 맡은 교회 임무는 세인트조지 성전을 헌납하시는 브리검 영 회장님을 수행하는 것이었지.”⁵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열아홉 살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영감을 받은 축복사는 조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장수를 누리는 특권을 받았으며, 주님께서는 그대가 이스라엘의 강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니라. …… 참으로 그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선지자요 계시자로 설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고 이 부름에 성임하셨기 때문이니라.”⁶

가정 생활: 사랑과 고난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족은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⁷ 그는 사랑, 신앙, 높은 도덕 표준, 부지런한 노동 윤리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자신의 가정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4, 15, 16장 참조)

그는 1898년에 루이 에밀리 셔틀리프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1년 후, 그는 영국에서 2년 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아내는 그를 충심으로 지지했다. 그가 돌아오자 부부는 다시 가정생활을 시작했으며 두

딸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다. 슬프게도, 아내 루이는 세 번째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긴 조셉은 이렇게 기도했다. “당신께 기도하오니 제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루이를 만나고, 루이와 재결합하며, 영원토록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 금쪽 같은 자녀를 잘 보살펴서 그들이 생애 동안 순결하고 흠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오며”⁸

부인을 여윈 두 아이의 아버지는 부친의 설득을 받아들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이자 어린 자녀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찾았다. 의로운 소망을 지닌 그는 에텔 조지나 레이놀즈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1908년 11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 훌륭한 여성은 조셉의 첫 번째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고 후에 아홉 자녀를 더 낳았다.

어느 날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자 여행하던 중, 아내가 짊어진 짐이 이 사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소. 다음 몇 주 동안 계속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돕겠소. 당신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오. 아이들에게는 당신에게 공손히 행동하라고, 또 서로에게 친절하라고 말해 주오.”⁹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아내에게 시로 들려주었는데, 나중에 이 시는 찬송가 “가시밭 험한 길”(87장)의 가사가 되었다.

슬프게도 에텔은 193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는 미혼인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다. 스미스 장로는 다른 아내이자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1938년 그는 제시 에번스 스미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와 제시 에번스 스미스는 스물여섯 살 나이 차이에 기질, 배경, 교육적인 배경이 매우 달랐지만 놀랄 만큼 잘 어울렸다. …… 판이한 두 사람의 성격 차를 매워 준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었다.”¹⁰(교재의 6~23쪽 참조)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 사람

조셉 필딩 스미스는 교회에서 경전학자이자 복음 신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는]”(교리와 성약 88:118) 꺼지지 않는 열의가 있었다. 그는 열 살이 되기 전 물몬경을 두 번 읽었다. 친구들이 그를 보고 싶어 찾으면, 건초더미 위에서 경전을 읽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¹¹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경전을 공부하[는] …… 데서 큰 기쁨과 만족을



위: 스미스 회장과 그의 아들들. 위 오른쪽: 스미스 장로를 환영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1961년. 오른쪽: 솔트레이크 태버넬클에 앉아 있는 스미스 회장. 아래: 야구 경기에서의 스미스 회장, 어린 시절 스미스 회장은 야구를 즐겼다.



느꼈[습니다].”¹²(10장과 18장 참조)

언젠가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스미스 회장의 학식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나는 자네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중에서 경전에 대해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¹³

학구열 때문에 소년 시절에나 성인이 되었을 때에 운동과 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야구를 좋아했고 시골 아이들이 하는 많은 놀이를 즐겼다. 성인이 되자 열광적인 핸드볼 선수가 되었으며, 자녀들의 운동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가족 모임에서도 운동이라면 빠지지 않았다. 나는 어느 소프트볼 시합에서 할아버지가 직선타를 날려서 왼쪽 외야에서 사진을 찍던 삼촌의 카메라를 맞춘 일을 즐겁게 떠올리곤 한다.

인정 많은 신앙의 수호자

조셉 필딩 스미스는 사도로 부름받기 전부터 신앙의 수호자로 알려졌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점 때문에 그를

근엄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성약에 충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더 부드러운 측면을 곧장 알아볼 수 있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십이사도가 이스라엘의 판사들이 되겠지만, 그 판결은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공정하고 경건할 것이므로 우리 중 그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¹⁴

스미스 회장의 그런 친절함의 예는 교회 소유 차량의 사고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어느 모임에서도 나타났다. 어떤 노인이 보험도 들지 않고 채스트릭을 몰고 가다 사고를 일으켰다. 잠시 논의한 끝에 교회가 이 사건을 법정에 넘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스미스 회장은 목청을 높였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걱정하고 달려든다면 그 가난한 노인에게서 트럭도 뺏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살죠?” 위원회는 그들의 제안을 거두고 사건을 그냥 두기로 했다.¹⁵

솔트레이크 모지에서 스미스 회장의 무덤 헌납이 끝나고, 해롤드 버리(1899~1973) 회장님을 뵈러 갔을 때 나는 할아버지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리 회장님께 “리 회장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께 보여 주신 친절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내 눈을 응시하시며 다정하게 대답하셨다. “난 그분을 사랑했다네!”

참되고 충실한 종

스미스 회장의 성역은 회개를 외치라는 경전의 권고에 순종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6:9; 11:9 참조)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의 사명은 주님의 영의 느낌에 따라 시온의 여러 스테이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회개의 날이라고 말하고 후기 성도들에게 그들의 성약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며 …… 매사에 참되고 충실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¹⁶(5장 참조)

스미스 회장은 96년에 가까운 생애 동안 참되고 충실하게 남아서 끝까지 견디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스미스 회장님은 아흔을 넘긴 후에도 ‘자신의 성약과 의무를 지키며 끝까지 견디게’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¹⁷

스미스 회장에게 “참되고 충실함”은 종종 되풀이하는 문구 이상이었다. 그 문구는 모든 사람, 곧 성약을 맺은 교회 회원들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진심어린 소망의 표현이었다.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당부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과 맺은 성약을 기억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언제나 참되고 충실합시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한 저의 기도입니다.”¹⁸(19장~22장 참조)

여러분은 이 영감에 찬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동안 간증이 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순수하고 단순한 진리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축복으로 받을 것이다. 이 학습 과정은 되도록 “참되고 충실하게” 생활하려는 여러분의 소망을 키워 줄 것이다. ■

주: 저자의 어머니인 나오미 스미스 브루어는 조셉 필딩 스미스가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해에 태어난, 스미스 회장이 첫 아내와 사별한 후 재혼한 에멜 조지나 스미스의 두 번째 자녀이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2013), 16쪽.
2. Joseph Fielding Smith Jr. 및 John J.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1972), 176.
3.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1장; 또한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Apostle, Prophet, Father in Israel”, *Ensign*, Aug. 1972, 29 참조.
4.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29 참조.
5. Joseph Fielding Smith, Smith and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49에서 인용.
6. Smith and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vii에서 인용.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76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 조셉 필딩 스미스, 275쪽.
9. Joseph Fielding Smith, quoted in Smith and Stewart, *The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88~189에서 인용.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22, 23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4쪽 참조.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4쪽.
13. Heber J. Grant, Francis M. Gibbons, *Joseph Fielding Smith: Gospel Scholar, Prophet of God*(1992), 290.
14. Spencer W. Kimball, Bruce R. McConkie, “Joseph Fielding Smith,” *Ensign*, Aug. 1972, 28.
15. Lucile C. Tate, Boyd K. Packer: *A Watchman on the Tower*(1995), 176 참조.
16. Joseph Fielding Smith, Conference Report, Oct. 1919, 88; 강조체 추가.
17. 보이드 케이 팩커, “성약”,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96쪽.
18. Joseph Fielding Smith, Conference Report, Oct. 1912, 124-25.

2014년 학습 과목

올 해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를 공부할 것이다. 이 교재는 교회 회원 수가 3백 만 명을 갓 넘어섰고, 또한 스미스 회장이 사망했던 1972년 이후의 현 세대와 더불어 미래 세대들이 그의 영감에 찬 가르침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스미스 회장의 모범적인 삶을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힘으로 고양되고 감화되기를 바란다.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만 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갖게 할 복음 원리들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변인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공부할 것이다.

-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우리의 관계
- 우리 삶 안에 있는 성신의 영향력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
- 성전 성약의 중요성
-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
- 참되고 충실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는 방법

이 교재는 LDS.org에서 볼 수 있으며, 에서 휴대기기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그 책을 읽어 봐도 될까요?

50여 년 전, 동반자와 함께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대학교 근처에서 전도하다 만난 한 청년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곧 그와 그의 룸메이트가 우리를 초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와 논쟁을 하고 싶었던 거였다.

우리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중에 배우기 좋은 분위기에서 다시 만나 우리의 메시지에 대해 토론하기로 약속했다. 다시 만났을 때, 그 젊은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인간이 무언가 더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믿어야 하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미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한 다음, 그에게 미국의 존재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미국에 대해 책과 신문에서 읽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증언과 자신이 읽었던 것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처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의 증언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관해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젊은이는 동의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 전제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과 그분의 존재에 관해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여 주며 그 책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들과 대화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우리가 성경에 담긴 증언들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성경의 저자들이 보았던 그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그 젊은이에게 물문경을 주었고,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했다.

본, 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에게 물문경을 보여 주며, 그 책의 목적에 관해 가르쳤다. 우리는 그 책이 참되며,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간증했다.

그 젊은이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른 교회의 모든 목사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이 있군요. 그 책을 읽어 봐도 될까요?” 우리는 그에게 책을 주었고,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했다.

학기가 끝나서 그는 볼리비아에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기 전에 그를 만나 볼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 책을 읽고 간증을 얻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2012년, 나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의 스페인어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에 나는 선교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중에 볼리비아에서 온 한 선교사는 자기 스테이크의 어느 연로한 형제님이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개종 이야기라며 들려준 적이 있다고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눈물이 내 눈을 가득히 채웠다. 40년이 지난 지금, 볼리비아에서 온 한 젊은이를 위한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것이다. ■

닐 알 카든, 미국 유타



마마 세피의 성전 여행

1940년대, 하루는 멕시코 선교부 사무실에 있는데,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약 7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활화산인 포포카테페틀 발치의 작은 마을 오쥬바에서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는 모두 그녀를 알았다. 그녀의 이름은 마마 세피다.

그녀의 작은 토담집은 전임 선교사들이 숙소로 묵는 곳이었고, 그녀는 항상 선교사들을 위해 방을 비워 두었다. 키가 150센티미터도 안 되는 마마 세피는 오쥬바 근처 마을들의 장터에서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마을마다 장날이 달랐지만, 그녀는 장터마다 다니면서 과일을 팔았다.

선교부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큰 밀가루 포대를 들고 있었다. 포대에는 그녀가 수년간 모아온 0.5페소짜리 은전인 토스톤이 가득했다. 어떤 동전은 1884년부터 1911년까지 멕시코를 통치했던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시대에 나온 것이었다. 마마 세피는 그 돈 자루를 들고 오쥬바에서 선교부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온 것이다. 그녀는 아르셀 엘 피어스 회장님께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솔트레이크 성전까지 갈 차삐를 오랜 세월 모아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출국 허가를 받았고, 한 선교사가 그녀에게 여행 가방을 빌려 주었으며, 우리는 그녀를 기차역에 데려다 주었다. 피어스 회장은 텍사스 엘패소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하여 기차가 미국 국경을 지나면 마마 세피를 만나 솔트레이크시티행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스페인어 지부 회원들은 버스 터미널에서 그녀를 맞아 주었고, 숙소를 제공하고, 성전에서도 도움을 주었다.

몇 주 후에 마마 세피는 멕시코시티를 거쳐 오쥬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안전하게 긴 여정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장터에 나가 과일을 팔았다.

마마 세피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엘패소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버스를 타고 여러 날을 여행하는 동안 음식 주문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 영어로 “애플파이”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식사 시간에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애플파이를 시켰다고 했다.

아는 영어는 그것뿐이었기에 그녀는 버스를 타고 미국 지역을 오가는 동안 애플파이만 먹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마마 세피는 개의치 않았다. 그보다 그녀는 성전에서 보낸 시간들에 감사해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
베티 벤트라, 미국 유타



마마 세피는 돈 자루를 들고 선교부 사무실까지 약 70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찾아왔다.

가서 그의 오디오를 고쳐 주어라

우 리 옆집에는 지역 교회의 청소년 담당 목사가 살아서 그 교회의 청소년들이 그 집을 자주 왕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밤낮으로 그의 집 앞에 주차된 여러 대의 자동차들을 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그중 몇몇은 늘 자동차 오디오로 음악을 시끄럽게 틀었다. 그 차들이 올 때면 몇 구역 전부터 소리가 들려왔고, 더 가까이 오면 우리 집 창문이 흔들리기까지 했다.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자주 밤에 잠을 깨기도 했다. 심하게 짜증이 나서, 나는 그 청소년들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갈퀴로 낙엽을 모으고 있는데, 몇 구역 전에서부터 자동차 음악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더 시끄러워졌다. 그 차가 모퉁이를 돌아 이웃 집을 향할 즈음, 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오디오를 망가트려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 차가 멈춰서자마자 오디오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고, 내 절박한 기도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 나는 자동차 오디오 관련 일을 했었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단순히 꺼진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오디오가 작동이 안 되자 시무룩해졌고 친구들은 모여서 그 아이를 위로했다. 반면, 나는 오디오를 망가트려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했다는 생각에 우쭐한 만족감을 느꼈다.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 소년의 모습에서 오래 전 내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자동차 오디오를 망가트린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했다는 생각에 우쭐한 만족감을 느꼈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은 누그러졌고, 이 소년은 내 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가서 그의 오디오를 고쳐 주어라.”

그 속삭임은 너무 놀라웠고, 무시하고만 싶었다. 왜 내 생활을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고쳐 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 속삭임이 다시 느껴졌고, 결국 나는 그것에 따랐다.

그 아이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나는 곧바로 고장의 원인을 알아냈다. 오디오는 금세 고쳐졌다. 곧 그 오디오는 다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게 울렸다.

그 아이는 고맙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 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 밤에는 음악 소리를 낮춰 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방긋 웃으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아이는 밤에 자기 오디오 소리만 낮춘 게 아니라 나의 오디오 순찰대가 되어 친구들도 반드시 오디오 소리를 낮추게 했다. 그 후로 다시는 밤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분의 해결책 덕분에 나는 화평과 평온뿐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에 관한 고귀한 가르침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누가복음 6:27)는 계명의 의미까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

켄트 에이 러셀, 미국 플로리다



안녕, 어린 양

남편과 나는 우리 딸과 두 외손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우리는 딸이 여행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찾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세 살배기를 감당하는 것을 거들었다. 유모차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한 살배기 손자 토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토미는 소음과 밝은 불빛, 전반적인 혼란스러움 때문에 놀라서 바둥거렸다.

토미의 표정을 본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기에 큰 소리로 딸아이를 불렀다. 딸은 얼른 웅크리고 앉아서 토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을 응시한 다음 사랑스럽게 “안녕, 어린 양.” 하고 말했다.

즉시, 토미의 찡그린 이마가 펴지고 실룩이던 입술이 잠잠해졌고, 경직되어 올라간 어깨가 내려오고 온 몸이 느슨해지면서 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토미는 슬며시 웃음을 띠더니 다시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다. 고요한 확신과 주위에 감도는 평안이 토미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했다. 그것은 엄마에 대한 토미의 작지만 강력한 신뢰의 표시였다. 엄마의 친근한 촉감, 음성, 그리고 존재는 토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토미처럼 우리는 모두 두려움과 불확실성, 중압감을 느낀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는다. 그분은 자신의 양 떼를 아시며,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나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앙과 신뢰로 선한 목자께 향한다면 위안과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혼란 속에서 위안을 축복받을

때, 나는 공항에서 딸아이와 손자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토미처럼, 나는 내 짐이 가벼워질 때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러한 시기에 나는 나의 목자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안녕, 어린 양.” 하고 부르시는 것을 느낀다. ■

콜린 솔로몬, 캐나다 온타리오

한살배기 손자는 소음과 밝은 불빛, 전반적인 혼란스러움 때문에 놀라서 바둥거렸다.



잘 견디십시오

크리스토퍼 제이 랜싱 장로

북미 북동 지역 지역 철십인

구 원의 계획은 훌륭한 계획이며, 그 계획에는 때때로 도중에 발생하여 우리의 희망과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나 위기에 직면합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큼니다.

작은 위기는 봄비는 도로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위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각한 사고, 또는 가족의 비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사람이 정한 법에 불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초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오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규칙 바운드”라고 부를 만한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구기종목 경기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규칙 바운드를 압니다. 그것은 경기의 일부입니다. 불규칙 바운드의 규모나 빈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불규칙 바운드를 인생의 일부로 인식하고 신앙과 용기로 삶을 지속해 나가려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항상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가
잘 견딘다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며

제 외동딸 린지가 어렸을 때, 린지와 저는 함께 영화를 즐겨 보았습니다. 함께 즐겨 보았던 영화 중 하나는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니모는 스쿠버 다이버에게 잡혀서 치과 병원의 어항에 갇히게 됩니다. 니모의 아버지 말린은 니모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말린은 도중에 도리라는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니모를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연이은 장애물에 부딪칩니다. 장애물이 크든 작든, 도리가 말린에게 전한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세요.”

수년 후에 린지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힘든 일입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매주 저는 이메일 말미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거라. 사랑하는 아빠가.”

린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심장에 구멍이 있고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매우 힘든 시기 동안 저는 이메일을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저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거라.”

우리 모두의 삶에는 장애물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묵묵히 헤엄쳐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가운데 하나는 교리와 성약 121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절망의 심연에서 해의 왕국만큼 높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훌륭한 구절입니다. 이 편과 122편, 123편은 조셉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위대한 계시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계시들이 주어진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조셉과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은 1838년 12월부터 1839년 4월까지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음식은 거의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흙바닥에다, 천정은 너무 낮아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린번 더블유 보그스 주지사는 악명 높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외에도 여러 번 하늘의 방문을 받았던 바로 그 조셉 스미스입니다. 1절에서 질문한 다음 곧이어, 조셉은 자신의 답답함을 표출합니다.

“당신의 분노가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불붙게 하시고 또 당신 마음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당신의 검으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이지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뻐하겠나이다.”(5~6절)

주님은 조셉의 토로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뿐이리니”(7절)

그런 다음 그분은 조셉에게 훌륭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8절)

이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고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항상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가 잘 견디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10절에서 조셉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는 아직 욕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들은 욕의 친구들이 그에게 한 것같이 너를 대적하여 논쟁을 벌이지 아니하며, 네게 범법을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든, 우리는 다음 사실을 배웁니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교리와 성약 122:8)

122편은 121편을 보완합니다. 저는 그것을 -르지라도(if)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편에는 -르지라도(if)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환난 가운데를 지나도록 부름을 받을지라도, 네가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협에 처할지라도, 네가 도적 때 가운데서 위협에 처할지라도, 땅이나 바다에서 위협에 처할지라도”(교리와 성약 122:5).

그 어려움들을 현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들로 대체한다면, 아마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 죽을지라도, 내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나를 버릴지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지라도, 내가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르지라도를 붙여 이러한 것들을 먼저 언급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또는 딸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7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국 도움이 되며 심지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리와 성약 123:17)

인생은 장애물로 가득하며, 어떤 것들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충실하게 그것들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모범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인내의 모범은 바로 구주의 생애입니다. 속죄는 그분이 모든 것보다 낮게 내려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완전한 삶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낮게 내려오신 그분은 모든 인류의 불행과 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

예수님은 자신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 아셨으며, 지극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렇지만,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거의 60년 전에 제 아버지께서 창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서른 살이었던 저에게
회사의 운영권을 남기신 채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초창기 시절의 상황들로 인해 저는

우리의 연약한 사업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하셨을 법하게 해내고자
열심히 일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인도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했고, 그렇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 행동에 대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한 것으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도록 도와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그분께 원망 섞인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 상황을
아셨지만, 자신이 계신 곳에서 바쁘셨고,
이전의 사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 이곳에서는
사업에 대해 그리 상관하지 않는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네
사업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싶은 위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얻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때로 우리는 전세에서 우리가 도덕적
선택의지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 구주 옆에서 싸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승리했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추방되었으며,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이 삶을
경험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는 속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속죄는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갖게 되며,
우리는 주님의 일과 영광, 즉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는
대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2012년 10월 30일 BYU-하와이에서 열린 영적인
모임에서 전한 “That’s Life”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고자
하는 소망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는 장애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미래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올해에 여러분이 미래에
꾸릴 가족을 위한 어떤
훌륭한 선물을 개발하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멋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공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선물을 열어 보고 기쁨의 눈물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단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감동을 받아 웃음짓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공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아마 이미 선물을 주는 데 전문가일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더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가족을 위한 몇 가지 선물, 그 훌륭한 선물을 미리 예매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에세이 과제하기

자신의 방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엔가 쌓아 놓고 끝내지 않은 에세이 과제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방이 어떤지 알기에, 거기에 쌓여 있는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세이 과제는 이미 컴퓨터로 쳐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세이 과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에 리스 대학(현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종교 수업을 가르칠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25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편에서 에머 스미스는 “기록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데”(8절) 그녀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반원들에게 부지런히 글쓰기 실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셋째 줄에 앉아 있던 금발의 여학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에겐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 않네요. 평생 글을 쓸 일이라곤 자녀에게 쓸 편지뿐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만 보고도 많은 자녀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녀가 쓸 편지들까지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글을 쓰는 것이 그녀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있던 한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학기 중에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한 번도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반원들보다 나이가 많고, 수줍음도 많았습니다. 그는 말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소강 상태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소총을 두고 안전한 요새 맞은편에 있는 우편물 배포소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편지 하나를 쥐는 순간, 그는 나팔 소리와 별뿔처럼 밀려오는 적들의 함성, 박격포와 소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맨손을 무기 삼아 싸우며 소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과 함께 그는 적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과 몇몇 죽은 이들 사이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그가 의롭다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청년은 반원들에게 “그 편지는 저에게 경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고, 아마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어느 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조건 없이 무엇이든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으로 보내고 싶은 편지를 쓰는 데 어떤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방으로 돌아가서 에세이 과제를 쓰고 읽고 다시 쓰기를 되풀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마음속에 그려 보고, 그의 심정을 느끼며, 언젠가 그에게 필요할 편지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PHOTO ILLUSTRATIONS BY CODY BELL



수학 문제 풀기

지금 여러분 중에는 에세이 과제가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 문제는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있을 어떤 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난 학교가 정말 싫어요.”라고 말할 십 대 아들이나 딸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학교나 수학도 아닌, 바로 패배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런 느낌들을 분별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과서를 편 다음,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 보자.” 하고 말할 것입니다. 보트가 하류로 내려가는 데 2시간이 걸리고 같은 보트로 돌아오는 데 5시간이 걸린다면, 유속은 얼마이고 보트가 여행한 거리는 얼마이냐는 문제를 앞에 두고서 여러분이 느끼게 될 당혹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래, 나 역시 수학을 잘 못한다는 걸 보여 주면 내 아이에게 위로가 될 거야.’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그들은 그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도 소년 시절에 보트 문제와 다른 많은 문제로 씨름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화학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학자가 되는 데 필요한 준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그리 우아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의자만 여러 개 있었고, 벽에는 장식품 대신 초록색 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미래에 여러분의 아들딸이 이르게 될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다.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했었고, 몇몇 선생님들 역시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칠판을 교대로 사용하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포장해서 제게 주셨던 선물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칠판과 그분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가르치시는 데에는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챙겨 주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기꺼이 내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던 시절,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에 시간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저와 칠판 앞에서 공부할 시간을 낼 수 있으셨고,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기에, 저는 또 어떤 해에 한 소년의 옆에 앉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똑같은 보트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많이 향상 되었음”이라고 적힌 성적표를 선생님께서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성취는 한 멋진 소년이 자신에 대해 갖게 된 느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스튜어트를 위한 어떤 것을 놓더라도, 그 아이가 이룬 것에서 얻은 자부심만큼 가보로 남길 만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미술과 음악 배우기

어떤 미술이나 음악이라면 학생들은 그저 피식 웃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직 끝내지 않은 내 과제 안에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절대 나한테 심어 줄 수는 없을 거야.’ 제가 확신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주, 저는 한 청남이 상을 받는 행사에 갔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상영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졌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배경 음악으로 쓰인 유명 가수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내레이터인 그 청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단어들을 적고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은 다음, 음악과 단어들이 적당한 음량과 시점에 나오도록 조절하는 등,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그런 행사에서 모든 사촌과 이모, 삼촌들이 보는 가운데 상을 받는 아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여러분이 그 아이의 마음을 느끼고 감화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창의적인 기술을 쌓기 시작하는지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가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지금 회개하기

아직 여러분 중 일부가 주고 싶어할, 일찍 시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감독 시절에 저는 그것의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 생길 자녀들이 신권을 행사하고 영원히 인봉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대가와 고통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저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애통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직 몇 달에 걸쳐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노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딘가에는 의로운 신권 소유자를 가장으로 둔 한 가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생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눈부시게 포장된 온갖 선물들도 줄 수 있겠지만, 오래 전 제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쉬지 않고 주고 있는 바로 그 선물만큼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단지 꿈꾸기만 했던 미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꼈고 일찍부터 조건 없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나태함, 무뎠던 느낌들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희생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그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선물이 오래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속죄를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와 이 지상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빠질 죄에 대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히브리서 4:14~16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기꺼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한한 희생을 통해 주어진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누가복음 15:7 참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 우리 모두가 거저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느낌으로 감동받게 되기를, 강요받는 느낌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주기를, 우리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그 희생이 달콤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1980년 12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의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Gifts of Love”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본부 청남 회장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본부 청남 회장단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에 관해, 그리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모로나이사서 10:32)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성스러운 초대입니다. 그분의 속죄로 우리는 봉사하는 권능을 얻고,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다운 화평과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초대에 응할 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라”(교리와 성약 20:59)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분께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마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청남인 마이클은 학교 친구인 호세를 도움으로써 이 의무를 완수했습니다.

어느 날 호세가 “마이클, 너는 왜 항상 행복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봉사하기 때문이지.”라고 답했습니다.

“왜 봉사하는데?”

“신권이 있으니깐. 봉사는 내 의무야.”

2014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모로나이사서 10:32)



본부 청녀 회장단

여러분은 초대받았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

초대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생일 파티나 결혼 피로연에 초대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축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2014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모로나이서 10:32)라는 영원토록 중요할 즐거운 초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초대를 받으면 우리는 그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를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은 이 초대에 응답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 때 맺은 성스러운 성약들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구속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가르친 다음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편이 달리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임[이라].”(엘머서 38:9)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결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추가로 성약을 맺고 우리의 승영에 필수적인 의식들에 참여하는 곳인 성전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길에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성전 결혼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의로운 남성과 여성이 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초대장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성약의 길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향하는 이 과정은 오늘 시작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 초대는 우리에게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행과 표준, 관행과 구별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교리와 성약 25:10)고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 온전하게 되[라]”는 이 초대를 받아들일 때,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인도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응답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

호세는 “신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호세를 교회 활동에 초대했고 나중에는 예배 모임에도 초대했습니다. 결국, 호세와 그의 가족은 선교사들과 복음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호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고 의롭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대해 물어올 것입니다. 마이클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말은 초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이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입니다.”¹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마이클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회장단 제1보좌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하신 다음 약속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초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그분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며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²

그것이 바로 올해 주제의 핵심입니다.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옴, 리야호나, 2008년 3월호, 49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옴, 리야호나, 2008년 3월호, 52쪽.

모로나이서 10:32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구주를 따르라는 모로나이의 권유입니다.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함으로 향한 가장 진지한 노력이 지금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함은 [보류 중입니다.] 온전함은 부활한 뒤 주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88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분께 어떻게 보여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제언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방법들을 더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 보십시오.

- 계명을 지킨다.
-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한다.
- 교회에서 받은 책임을 완수한다.
- 진심으로 기도한다.

결단코

결단코-결코 또는 전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경전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수많은 권유들이 나옵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몇 가지 예를 찾아 보십시오. 이 성구들은 구주께 나아오는 것의 축복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한 권유가 담긴 성구를 더 찾을 수 있습니까?

- 욥나이사서 1:26
- 엘마서 5:34~35
- 제3니파이 12:19~20
- 마태복음 11:28~30
- 요한복음 6:35

32 참조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다.”

은혜

“경전에서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는 신성한 도움과 힘을 가리킨다.”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2~13쪽.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일부 기독교인들은 …… 후기 성도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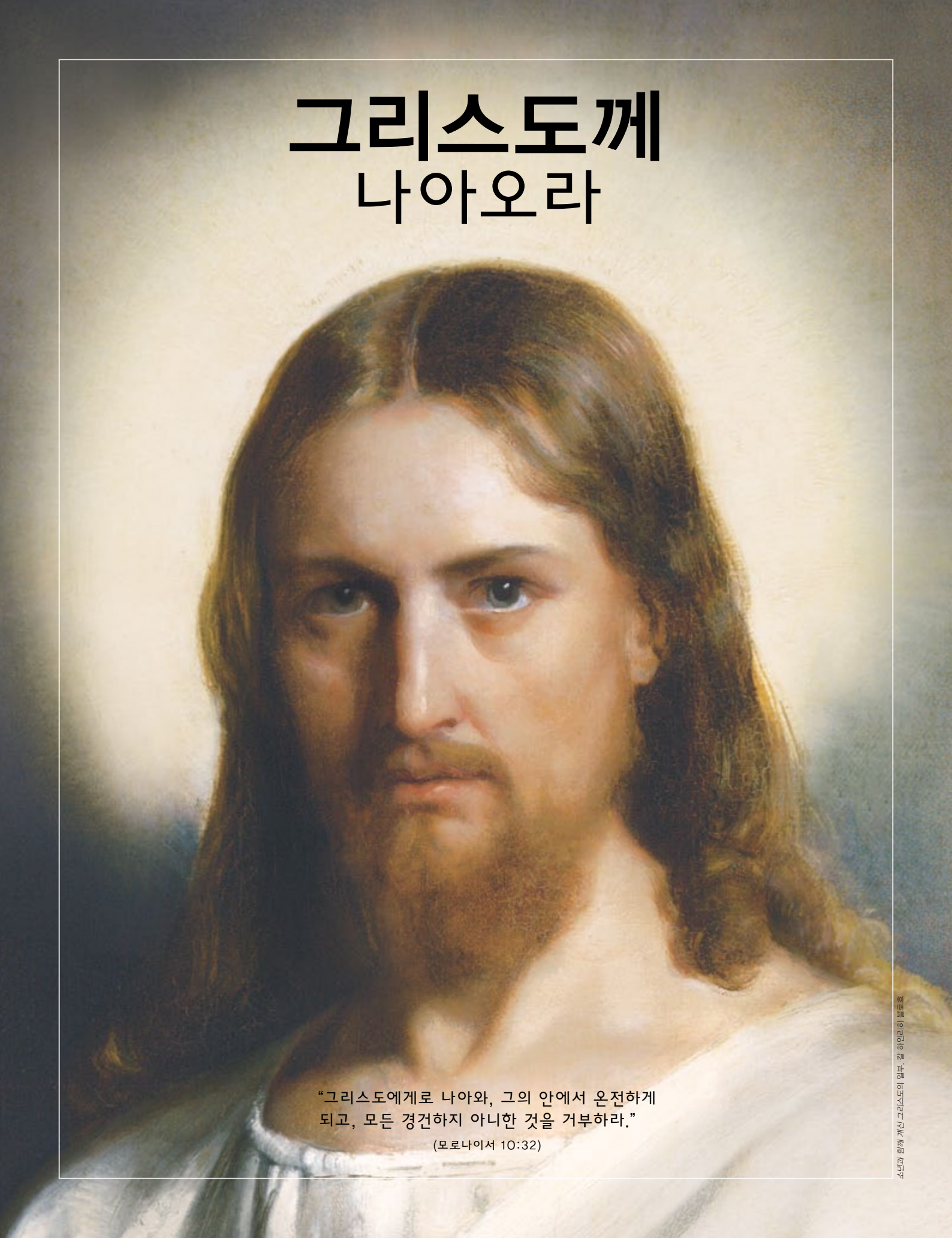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니파이후서 25:23)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 일이란 참으로 회개(엘마서 24:11 참조)와 침례와 계명을 지킴과 끝까지 견뎌 포함합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68쪽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완전(온전)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하며, 충만하게 발전된 상태. 전적으로 의로운 것. 완전하다는 것은 죄 또는 악이 없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완전하셨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의 은혜와 속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될 수도 있다.”(경전 안내서, “완전한”)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모로나이서 10:32)



신회를 알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신회에 관한 다섯 가지 원리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로리 플러
교회 잡지

조 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¹ 우리가 신회에 대해 알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큰 일에서뿐 아니라 작은 모든 일에서도 변화가 찾아온다. 다음 다섯 가지 원리를 읽어 보면서 신회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다.

신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신다.

신회 구성원은 영원하고 진능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잘 지내는지 염려하신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 “그분들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분들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²

신회의 구성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며, 특히 매일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운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³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사이야서 2:20~21; 교리와 성약 59:21 참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포함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모세서 1:39)이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므로,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용서를 제안하신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더라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우리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Dieter F. Uchtdorf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¹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다.

속죄를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다.(엘마서 7:11~13 참조) 힘든 날을 보내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좋은 날을 보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에도,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뿐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신다.

성신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성신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14:16~17, 26~27 참조) 우리도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신이 주는 응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 성신의 인도로 우리는 신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우리가 받는 속삭임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들을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이다.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05.
2. 고든 비 형클리,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8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87~90쪽.
4. Dieter F. Uchtdorf, “궁핍히 여기는 자가 궁핍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0~77쪽.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에 상고할 것들

- 언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
- 언제 그분들을 가장 가까이 느꼈는가?
- 그분들에 대해 배움으로써 자신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 신뢰를 앞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일지에 쓴다.
- 교회에서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눈다.



래리 엠 김슨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나는 항상 그분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일 한 살 때 저는 감독님을 따라 경건하게 새 와드 건물로 들어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성찬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래리, 너는 곧 아론 신권의 집사 직분에 성임될 거란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고 의무인지 깨닫고 있니?” 감독님은 제가 구주께서 행하셨던,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의 거룩한 상징물을 전달하는 신성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받게 될 신권 부름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압도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제게 두 개의 성찬 기도문을 외우고 그것이 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구주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려면 성찬 기도문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명하는 것들을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제가 교리와 성약(20:76~79)과 물몬경(모로나이서 4장; 5장)에서 성찬 기도문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 기도가 들려질 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빵이 전달될 때, 기도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도 했지만, 성찬 성약의 온전한 영향은 제가 물을 축복하는 기도문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명확해졌습니다. “항상 그를 기억함”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항상이란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하면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신성한 성찬 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그 주의 나머지 6일 동안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은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우리의 장점과, 부족한 면에 대해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찬을 취하고, 우리를 대신해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로도 주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교리와 성약 59:13)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하는 활동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는 일들 중에서 구주를 기억하고 안식일에 그분처럼 성역을 베푸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의] 일을 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여러분의] 헌신을 바치도록”(교리와 성약 59:10) 정해진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활을 잘 계획하여 주님의 날에 그 어떤 시간도 신성함에서 멀어지는 구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날은 그분의 일을 하는 날이며, 각각 혹은 가족과 함께 신성한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안식일을 정말로

신성하고 거룩한 날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 훌륭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 하면 …… 땅의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교리와 성약 59:15~16).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에서 이러한 축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식일을 기리는 것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살아 계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간증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신성한 계명을 따르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영감을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



성공으로 나아감

다니엘 카와이

열 네 살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은 내가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시고 브라질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셨다. 대회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 1, 2 단계는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나는 3 단계에 배정되었고, 그 대회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다고 했다.

나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선생님과 올림피아드 담당자에게 말했다. 그 담당자는 내게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실적이 되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여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을 영예롭게 하실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몇 주 후에 우리는 올림피아드의 비서관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비서관은 다른 날에는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실격 당할 것이라고 알려 왔다. 오랜 대화 끝에, 그는 내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제안을 해 왔다.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다.

다음 날 밤, 담당관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내가 일요일 시험을 월요일에 편한 시간에 치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답변이 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오전 수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사는 도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 주겠다고까지 했다.

이 좋은 소식을 받은 후, 나는 주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렸다. 부모님은 성전에 가서 감사를 드렸다.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내 목에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핵심 개념

“주께서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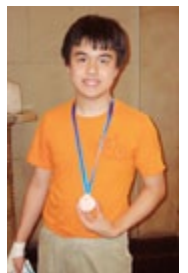
안식일에 적합하고, 영을 고양시키는 많은 활동을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주중에 잘 준비하십시오. ……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과 가족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영원한 관점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2쪽

금메달이 걸리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을 영예롭게 하신다. ■

글쓴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산다.



성화: 제이 베스 필슨

해답을 찾아서

청남들은 만 18세가 되자마자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까? 그리고 자매들도
이제 만 19세에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선교 사업을 더 강하게
권유받는 것입니까?

활동적인 교회 회원인 다른 청소년들부터

교회 표준을 여기라는 압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독선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선교사 봉사 자격 연령 변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일찍 선교 사업을 할 것이라고, 또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신권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러한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부터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¹ 여러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재정적 준비, 영적 준비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언제가 봉사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결정할 때 이러한 준비 상태에 대해 여러분은 부모님 및 신권 지도자들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은] …… 청년 남성들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자매들이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한다는 점을 자매 여러분에게도 알려 드리며,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도 환영합니다.”²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5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쪽.

압 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표준을 알고 있는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더욱이 여러분이 독선적으로 행동한다고 여기더라도 교회 표준을 지키는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과 또래들 앞에서 의로운 척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거나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족이 정한 표준을 여기라고 압력을 줄 때에도, 여러분은 단순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자신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상황을 재치있게 대응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선지자 엘마가 자신의 선교사 아들 시블론에게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라]”(엘마서 38:12)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비난을 하거나 잘난 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선택한 표준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알려 주면 됩니다. 활동적인 교회 회원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분명한 교회 표준을 여기라고 종용한다면,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에게 친구가 되되, 절대 표준을 양보하지는 마십시오.”¹ ■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분향으로 가는 멋진 여행”,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28쪽.



축복을 양쪽 모두 받도록



성전 참여와 가족 역사는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온다.

브리트니 비티
교회 잡지

이 번 달 리아호나의 책장을 넘기면서 각 사진과 그림, 또는 디자인에 풍부한 기운과 활력을 주는 다채로운 색상의 조합을 살펴본다. 수많은 색깔은 기본 색상인 빨강, 노랑, 파랑 중 두 가지가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기본색이 각기 따로 있으면 그런 색깔은 나올 수 없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이런

색들과 비슷하다. 이 중요한 두 사업이 결합할 때 더 많은 축복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사실 구원 사업이란 하나의 일을 이루는 두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은 가족 역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이름을 위해 의식을 받으면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자기 가족의 이름을 찾고, 성전에서

자신의 조상을 위해 의식을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색을 갖춘 팔레트를 가진 것처럼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사업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중요한 대리 사업에 대한 축복을 양쪽 모두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시어 우리가 그럴 자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그 축복들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조상 중 한 분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는다면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성스러워지고 더 큰 축복들이 올 것입니다.”¹

그렇다면, “축복을 양쪽 모두 받[을]” 때 오는 “더 큰 축복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른쪽에 현대 사도들의 약속이 있다.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4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5~16쪽.
3. 러셀 엠 넬슨,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2쪽.
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폐는 지금입니다”
5. John A. Widtsoe, Conference Report, Apr. 1943, 39.



정화하는 영적 영향력

“가족 역사 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을 정화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상에 살아 있는 가족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함께 묶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자신의 혈통을 탐구할 때 우리는 성전 의식에 사용될 이름이나 숫자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조상에게 돌리게 하며, 그들을 찾아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합니다.”²



더 큰 사업의 일부

“..... 영적 교감[이 형성됩니다.]

..... 우리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거대한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³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어막

“우리 각자는 먼저 가신 모든 분들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들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조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적으로부터 연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가장 훌륭한 방어막입니다.”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한다면, 아마도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저쪽 세상에는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⁵



내가 찾은 이름 하나

“청 소년 성전 방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와드는 청소년 활동으로 성전에 가져갈 가족의 이름을 찾기로 했다. 나는 친구들 옆에 앉아서 의식이 필요한 이름을 못 찾겠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많은 조사 끝에, 나는 이름 하나를 찾았다. 어찌나 기쁘던지!

곧바로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 달려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여쭙어 보았다. 상담자는 내가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저장하고 인쇄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 이름은 단순히 화면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다. 나는 영을 느꼈고 그분이 자신의 의식이 수행되기를, 그리고 내가 자신을 찾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갈 수 있었다. 조상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의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대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리아 지, 미국 뉴욕



인터넷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성전 의식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이름을 제출해야 하지만, 집에 인터넷이 없어도 된다. 생존하는 친척들에게서 이름, 정보, 가족 이야기를 수집한 다음, 이름들을 제출할 수 있는 현지의 가족 역사 센터를 찾아본다.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와드나 스테이크의 가족 역사 상담자들을 찾아서 데이터 입력 방법을 문의한다.



제출할 이름이 없으면 성전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성전에 갈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대신해서 침례와 확인을 받아 주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온다.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제출할 가족 이름이 없어도 성전에 가야 한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가르쳤다. “자신의 가족 역사를 조사할 능력이 제한된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나 성전이 제공하는 이름으로 대리 의식을 수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제일회장단 서한, 2012년 10월 8일)



제일회장단의 권유

“교회 회원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찾아 성전 의식을 위해 가져간다면 성전에서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들이 자신의 가족 이름이나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 조상의 이름으로 성전 사업을 할 것을 특별히 권고드립니다.”

제일회장단 서신, 2012년 10월 8일.



청소년의 소리: 가족 역사의 축복

미 국 뉴욕의 청소년들은 최근에 스테이크 회장으로부터 특별 청소년 대회 일부로서 가족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가져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마음이 조상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을 느끼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말라기 4:5~6 참조)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면서

- “가족 역사를 그쳐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만 여겼었는데, 이제는 이 이름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온, 실제로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가족의 이름을 가져갈 때는 성전에서 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름 하나를 찾는 데 들어간 모든 노력과 시간,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각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야 할 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해나 에이, 13세
- “한 사람을 찾으면,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상의 이름을 가져가면 그 결속이 더 강화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원한 가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스펜서 에스, 15세
-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갈 때, 그분들의 실제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들

은 그냥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일부이며, 역사를 공유하는 실제 형제 자매들입니다.” —릴리 앤, 16세

축복을 받으며

- “제 생활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따스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노아 알, 13세
- “자신이 더 큰 사업의 일부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성전 축복을 받을 기회를 줄 때 아주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코린 시, 17세
- “가족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 편안해지고 차분해진 것을 느낍니다.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갈 때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타일러 엠, 16세
-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조상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들과도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간증도 커졌습니다.” —알렉산드라 에이치, 14세

-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로스 에스, 12세
- “이름을 찾을 때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왔다는 듯 평화와 흥분감에 압도됩니다.” —리아난 비, 15세
-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라이자 앨, 13세
- “집에서 다투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릭 앨, 12세
- “가족의 중요성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가족과도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엠마 앨, 15세
-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행되는 의식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노아 시, 14세 ■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의 이름을 찾고 성전에 가져가는 것과 관련된 “축복들을 요구”하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을 양쪽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계획을 세운다.

우리들 공간

영감을 주는 경전 구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임이라. 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니파이후서 2:9)

이 경전 구절에서 중재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양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구주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을 돕는 중재자를 뜻한다.

이 경전 구절을 통해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의 속죄에 감사한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

하니샤 에이, 인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선 교사 시절, 동반자와 나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 한 가족을 가르쳤다.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토론을 가르쳐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토론했는데, 둘 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아이들은 아주 좋아했다. 우리는 기도로 공과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조용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했다. 공과를 끝내고, 우리는 그 가족에게 물었다. “폐회 기도를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을 하러 갈 때마다 누가 기도할지 정해 주어야 했다. 또한 우리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권유했다.

그 토론을 마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인 구도자들은 기도하기 힘들어하는데 왜 어린 아이들은 쉽게 기도하는 것일까?’ 나는 영문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에서 답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이 된다.(마태복음 7:7~11) 기도의 어려움 중 많은 수가 이 관계를 잊어버리는 데서 온다.”(“기도”; 또한 경전 안내서, “기도” 참조)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지상의 부모님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신다.

제럴 엠, 필리핀

가족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된 가족

나는 개인 발전 기록부에 나오는 목표에 따라 가계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댁에 점심 먹으러 갈 때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늘 자신들과 다른 친척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는 가족 역사 센터에 가서 우리 가족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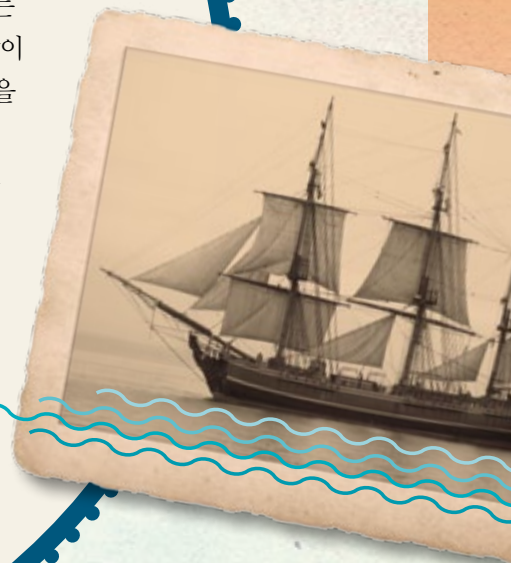
고조할머니의 정보를 찾았을 때가 기억난다. 고조할머니는 임신한 상태로 배를 타고서 아르헨티나에 오셨다. 여행 중에 그분은 아들을 바다에 묻어야 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기록에서 찾기 전까지는 단순히 한 이야기에 불과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고, 마치 함께 살았던 것처럼 조상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조상들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영원한 인봉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으며, 여러 세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FamilySearch 덕분에 숨겨진 보물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나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아주 좋아한다. “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보고를 여는 데 필요한 성스러운 열쇠를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¹ 노력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보물의 열쇠를 발견할 것이며, 언젠가 우리의 조상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야엘 비, 아르헨티나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신앙의 열쇠”, 성도의 벗, 1994년 5월호, 5쪽;
Tambuli, May 1994, 5.



성신을 통해 간증을 얻음

나는 아홉 살 나이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미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교회가 참된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원이 되고 몇 년이 지난 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성찬식 모임에서 찬송가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찬송가, 24장)를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가 참된지,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정말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지 여쭙어 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된단다, 그래,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고, 성신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성신이 내게 이 교회의 참됨을 증거하셨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간증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눌 용기를 얻게 되었다.
타마라 오, 브라질

¡Hola, amigos!*

우리는 멕시코에 사는
**마혼리와
 힐라맨**이에요

짐을 챙겨요!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러 가 봅시다!

마혼리

힐라맨

애미 제인 레빗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형 제인 마혼리와 힐라맨은 멕시코 만에 삽니다. 부모님은 물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혼리 모리엔쿠머는 야렛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힐라맨 장군은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천 용사를 이끌었습니다. ■

* 스페인어로 "안녕, 친구야!"



이 두 형제는 부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물몬경에 나오는 마혼리와 힐라맨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저는 성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성전은 멕시코에 있는 13개 성전 중에서 11번째로 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2003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성전에서 인봉되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이죠. 도착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는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부모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떠납시다!

마흔리와 힐라맨은 가방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방에 넣어 가고 싶나요?



우리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매주 토요일에 우리는 집 근처의 바닷가에 가서 가장 좋아하는 새우랑 타코, 토타스(멕시코식 샌드위치)를 먹어요. 말레콘이라는 해변 도로를 따라 걷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놀기도 해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헝가리



멕시코



브라질



통가



대한민국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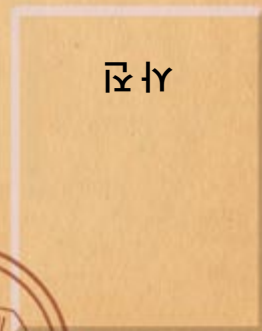


영국



스웨덴





Pasaporte

Paseport

여권

전 세계 친구들



이번 한 해 동안 매월 리야호나에 나오는 국가들의 도장을 찾아 여러분의 여권에 추가해 보세요.



전 세계 친구들



Hello!

iHola!

안녕

ПРИВЕТ!

Mhoroi!

Olá!

Mālō e
lelei!

Ciao!

Hej!

우리들 이야기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은 멀리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부모님과 인봉되던 날, 저는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그곳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가족이 성전에 갈 때 저는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성전에서 성약을 맺을 거예요.

데이비드 브이(6세), 니카라과



저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제러드와 사라이라는 두 명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들을 많이 사랑해요. 저도 크면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엄마가 음식을 하실 때 도와드리는 걸 좋아해요.

엠버 에이(9세), 에콰도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 모두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또 교회가 참됨을 알아요.
오시리스 엠(6세),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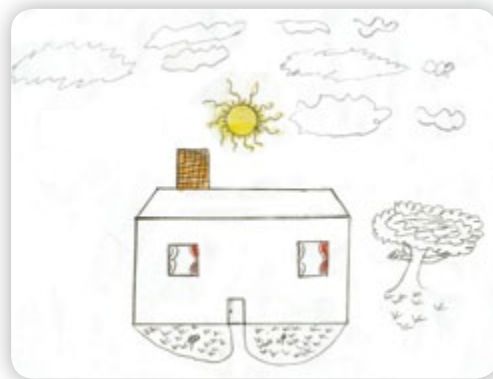


트리스 엠(8세), 브라질



저는 가정의 밤을 할 때 엄마를 돕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합니다. 제가 크면 사촌들처럼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사랑해요. 저는 초등학교 노래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좋아해요.

케이디 피(12세), 온두라스



디 반 히엡(11세), 캄보디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배우며 자랐어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받겠다는 결심을 했죠. 저는 그 특별한 날을 위해 신앙개조 13개조를 모두 외웠어요. 물에서 올라왔을 때 매우 강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엄마는 그 느낌이 성신의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했고, 물몬경이 참되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살아 있는 선지자시라는 걸 알아요.

아비가일 에이(8세), 스페인

마치 경전처럼!

산행 표지판이 보이기 전까지는 등산이 재미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르네 웨이트 매클리
실화에 근거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모사이야서 24:14)

10 살짜리 애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내는 것을 좋아하죠.

아빠는 언제나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말은
경전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을 때면, 때로 아빠가 설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도 알아요, 아빠. 우리도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빙그레 웃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늘 옳은 말을 하기



“목적을 기억하면서 좀 더 집중하여 경전[을] …… 읽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과 특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59쪽.

때문입니다.

한 번은 경전이 정말 제 삶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배낭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커다란 배낭과 침낭을 메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호수까지는 6.5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없었죠.

등산은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3킬로미터를 걸은 후 휴식을 취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등산로 시작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표지판에는 호수까지 거리가 9.5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를 더 가야 한다는 걸 아빠가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빠는 우리에게 물을 아껴서 마시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조언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조언대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자 등산로에는 그늘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호숫가에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뒤쪽으로 처졌고 사촌언니, 오빠들은 계속 앞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제 또래인 사촌 세 명과 같이 걸었는데, 우리는 중간 어디쯤의 위치였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일행들이 아무도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이 무겁게 느껴졌고 물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

결국, 걱정과 피로에 지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배낭을 메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곧이어, 저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말을 탄 아저씨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길을 멈춰 선 아저씨는 우리에게 물을 몇 모금 나눠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저희의 사촌 언니 오빠들이 우리에게 물을 갖다주려고 정수 필터를 가지고 호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 말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배낭 좀 들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니?”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촌들을 쳐다보았고, 사촌들은 저를 향해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움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저씨, 그냥 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호숫가로 가는 길 내내 마치 천사들이 우리의 배낭을 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걸으며 인도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아빠는 함박웃음을 지으셨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모사이아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14절)

“등산할 때 우리도 그랬는데!” 이 구절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구절은 제 삶을 묘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삶을 묘사하는 다른 구절을 또 얼른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경전을 저한테 비유하고, 또 저를 경전에 비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노아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였습니다. 노아는 계명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대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고 올해 매주 구약전서를 읽음으로써 가족이 안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 도움을 받아 색깔하기 면을 올리거나 liahona.lds.org에서 인쇄해 보세요. 매주 경전을 읽은 후, 그 주의 숫자가 적힌 칸을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색깔로 모두 색칠해 보세요. 주별 독서 과제는 76쪽을 참조하세요. 혼자서 읽거나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 과제를 다 읽을 때쯤이면 구약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

상화: 에담 코포드





28

5

29

41

25

24

26

18

52

9

15

10

14

12

21

7

1

23

51

48

13

32

43

42

44

49

18

30

31

50

36

47

20

7

6

33

20

17

46

13

2

51

22

16

23

14

24

15

34

2

“구약전서 읽기 목표”에 대한 주별 독서 과제(74~75쪽 참조)

주	읽기	주	읽기
1	구원의 계획: 모세서 1:39; 아브라함서 3:12, 22~28; 4:1	26	기드온: 사사기 6:6~16; 7:1~7, 16~22; 8: 22~23
2	창조: 창세기 1장; 2:1~3	27	삼손과 들릴라: 사사기 13:1~5, 24; 16:2~23, 28~30
3	아담과 이브: 창세기 2:7~9, 15~25	28	룻과 나오미: 룻기 1:1~9, 14~16; 2:1~8, 15~18; 3:1, 3~11; 4:13, 17; 요한복음 7:42
4	타락: 창세기 3장	29	소년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상 1:9~11, 17~20, 24~28; 2:26; 3:1~11, 16~20
5	가인과 아벨: 창세기 4:1~16	30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6:7; 17:1, 4~24, 32~33, 37~51
6	예녹의 도사: 모세서 6:21, 26~28; 7:13~21	31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1~9; 19:1~10; 23:14~18; 24:9~10, 16~19; 사무엘하 1:4, 11~12
7	노아의 방주: 창세기 6:5, 7~9, 13~22; 7:1~19, 23~24	32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1:1~4, 14~17, 26~27; 12:1~7, 9, 13
8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음: 창세기 8:6~13, 15~17	33	솔로몬 왕: 열왕기상 2:1~4, 12; 3:3~28; 6:1
9	바벨탑: 창세기 11:1~9; 이더서 1:1~3, 33~43	34	르호보암: 열왕기상 11:43; 12:1~21
10	아브라함의 성약: 아브라함서 1:1~4; 2:6~13; 창세기 17:1~7	35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9:11~12
11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1~13; 19:1, 15~17, 24~29	36	엘리야와 바알의 거짓 선지자: 열왕기상 18:16~18, 21~39
12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1~18	37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음: 열왕기하 5장
13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1~4, 7~20, 61~67	38	엘리사와 과부: 열왕기하 4:1~6
14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21~34; 27:1~23	39	이사야와 히스기야: 열왕기하 18:1~7; 이사야 36:1~2, 4, 13~15; 37:1~7, 15~21, 33~38; 38:1~7
15	야곱과 라헬: 창세기 29:1~2, 10~30	40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1:17~19; 2:2~4; 11:6~10; 53:3~5; 55:8~9; 58:6~14
16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 창세기 35:9~12; 37:3~14, 18~34	41	요시아왕과 에스라가 경전을 읽음: 열왕기하 22:1~4, 8~13; 23:1~4, 24~25; 느헤미야 8:1~8
17	애굽에서의 요셉: 창세기 39:1~4, 7~20; 40:1~3, 5~8; 41:1, 8~12, 14, 29~36, 39~40	42	시편과 잠언: 시편 1:1~3; 19:1~3; 24:1~4; 잠언 3:5~6
18	요셉이 용서함: 창세기 42:3~16; 43:15; 44:1~12, 18, 33~34; 45:3~8	43	에스더: 에스더 2:5~9, 17; 3:2~13; 4장; 5:1~8; 7장; 8:3~11, 17
19	모세의 출생과 부름: 출애굽기 1:8~14, 22; 2:1~6, 10~21; 3:1~14, 19~20; 4:10~12	44	욥: 욥기 1장; 19:13~26; 27:2~6; 42:10
20	재앙: 출애굽기 7:10~14, 20~21; 8:6, 17, 24; 9:6, 10, 23; 10:14~15, 22; 11:5; 12:30~32, 41~42	45	예레미야: 예레미야 1:1, 4~9; 18:1~6; 이사야 64:8
21	출애굽: 출애굽기 14:5~16, 19~31	46	솔로몬 성전: 역대상 28:20; 29:6~9; 역대하 5:1; 6:1~3
22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에서 만나를 받음: 출애굽기 16:1~8, 21~31, 35	47	다니엘과 왕의 음식: 다니엘 1:1, 3~20
23	십계명, 놋뿔: 출애굽기 19:1~5, 20; 20:1~17; 31:18; 민수기 21: 4~9	48	사드락, 메삭, 아벳넛고: 다니엘 3:1, 4~30
24	솔로브핫의 딸들: 신명기 27:1~7	49	다니엘과 사자: 다니엘 6장
25	여호수아와 여리고 싸움: 여호수아 1:1~11, 16~17; 2:1~6, 14; 3:5~9, 13~17; 6:1~5, 13~16, 20, 23; 24:14~18	50	요나와 고래: 요나 1장, 2장; 3:1~5
		51	그 외의 경전 구절: 아모스 3:7; 나훬 1:7; 하박국 3:19; 스바냐 3:16~20
		52	말라기: 말라기 3:8~12; 말라기 4:5~6



로즈메리 엠 위크
본부 초등학교 회장

승리의 터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니파이후서 9:13)

지난 봄, 남편과 저는 네 살 난 손자의 축구 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쫓아 이리저리 달리자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종료를 알리는 호각 소리가 났을 때 선수들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상대 팀 선수들과 악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감독은 큰 소리로 승리의 터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부모, 조부모, 그리고 그 경기를 보러 온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서로 마주 보며 두 줄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들어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환호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터널 아래를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곧 상대 팀 어린이들도 이 즐거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은 승리의 터널을 지나가는 모든 선수에게 환호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으로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어린이를 위해 만드신 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제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팔 아래로 험착하고 좁은 길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¹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모두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한 품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대해 더 배워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지상에 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방법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따라 걸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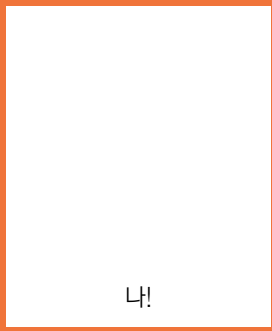


성전 성약을 맺는다.



성찬을 취한다.





나!

나의 여정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을 나타내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나 포스터 게시판에 그 여정을 그려 보세요. 어른에게 도움을 받아 작은 그림을 오려서 여정을 따라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보세요. 침례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세요.

준비물

- 종이나 포스터 게시판
- 가위
- 풀이나 테이프
- 크레파스, 마커펜, 연필

노래와 성구

- “아들 보내셨네”(어린이 노래 책, 20~21쪽)
- 요한복음 3:16

가족과 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족들이 차례대로 시각 자료를 사용해서 그분 계획의 다른 여러 부분을 설명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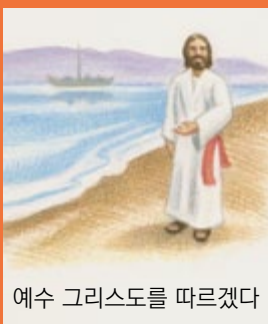
계명을 지킨다



내 침례일



의를 수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언젠가 저곳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거예요!



물문경



미래의 내 가족



부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수 있나요?

테레사 스타

그 날 아침은 내 아들 다니엘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첫날이었는데, 다니엘은 집을 떠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들이 “진짜 세계”에서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시키고 싶었다. 다니엘이 집에 없는 동안 매우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엄마가 비록 유치원에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제 갓 다섯 살이 된 다니엘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니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나는 분명한 확신을 보여 주었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저를 보실 수 있나요?”

다니엘이 물었다.

나는 “당연하지. 그분은 언제나 너를 보실 수 있단다.”라고 대답했다.

다니엘은 들뜬 표정을 지으며 곧장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나도 바로 다니엘의 뒤를 따랐다. 다니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으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시고 웃어 주실까요?”



마당으로 뛰어온 다니엘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웃으면 하나님도 절 향해 웃어 주실까요?” 하고 물었다.

목이 메인 나는 “그래!” 하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며 이번에는 눈을 찡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생각에 잠겨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미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다니엘은 하늘을 응시하며 웃음지었다. 평화로운 표정이 깃든, 천사와 같은 아들의 얼굴에서 나는 아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의 미소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이들의 말에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에 대해, 어린이들이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신앙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인생이란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견디기를 기도한다.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다니엘의 모범을 떠올렸고 어른도 가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수 있으실까?”라고 되뇌어 본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처럼 조용히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내 삶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의 손길이 여러 번 임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성신은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 것이라는 확인을 심어 주신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 희망에서 영감을 얻은 나에게 영은 내가 언제나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확신을 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삽화: 로버트 티 버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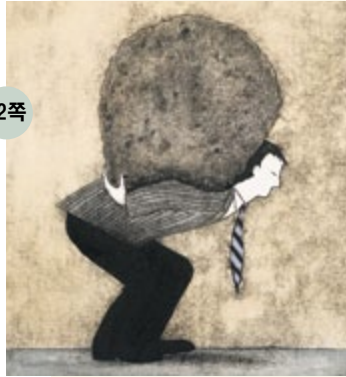
해롤드 비 리

해롤드 비 리는 어린 시절에 영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주 낡은 헛간으로 향하던 그분에게 한 음성이 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해롤드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영의 음성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삶에서 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교회 부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에게

42쪽



잘 견디십시오

항상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시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축복을
양쪽 모두 받도록



가족 역사를 하고 조상들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갈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 뉴욕 출신의 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눈다.

60쪽

어린이

69쪽



여 권

이번 한 해 동안 리아호나에 실릴 국가의 도장을 찾아 여러분의 여권에 추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